

茯苓甘草五味薑辛湯에 對한 文獻的 考察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內科學教室

高永哲 · 辛祖永

I. 緒 論

茯苓甘草五味姜辛湯方은 東漢의 張機가 撰한 <<金匱要略方論>>中 ‘痰飲咳嗽病脈證病治第十二 論一首 脈證二十一條 方十八首’中 第十七首로 記錄되어 있는 方¹⁾으로써 茯苓 · 甘草 · 五味子 · 乾薑 · 細辛 · 半夏 · 杏仁 等 7味로 構成되어 있다. 本方은 小青龍湯 · 苓桂味甘湯 · 苓甘五味薑辛湯 · 苓甘薑味辛夏湯 等과 一連의 類方이며 病狀의 推移에 따라서 去加된 方²⁾으로서 苓甘五味姜辛半夏湯 服用後 “水去 嘔止 其人形腫”한 症狀이 있는 者에게 使用한 다³⁾.

本方의 構成 藥物을 보면 茯苓은 利水의 藥이며 胃內停水를 除去하고 小便不利와 心悸를 治한다. 半夏는 이에 相乘하며 杏仁은 胸間의 停水를 除去하고 喘을 治하며 呼吸困難과 浮腫을 治하는 作用이 있다. 茯苓과 半夏에 相乘하여 利水作用을 한다. 五味子是 收斂性 鎮咳藥이며 咳逆과 冒를 治하고 半夏 杏仁의 鎮咳에 相乘한다. 細辛은 冷한 宿飲停水를 主治하는 것으로서 心下의 水氣 때문에 咳嗽을 일으키는 것을 막는다. 한편으로는 五味子 半夏와 上昇하여 咳嗽을 鎮靜시키며 또 乾薑과 힘을 合하여 胃內의 停水를 去하고 四肢의 厥冷을

治한다. 乾薑도 또 溫藥이며 水毒이 上方으로 迫到하는 것을 治하고 結滯된 水를 들게한다. 甘草는 諸藥을 調和시킨다⁴⁾.

本方은 小青龍湯과 같이 喘鳴 · 咳嗽 · 水腫에 사용되지마는 貧血의 傾向이 있고, 脈沈弱 · 手足冷하며, 發熱 · 惡寒 · 頭痛 · 身體疼痛等의 表熱症狀은 이미 없으며 慢性化하여 虛狀으로 移行하고 水毒의 症狀으로서의 胃內停水 · 心悸亢進 · 喘咳 · 利尿減少 · 浮腫 等이 있는 者를 目標로 한다⁵⁾.

本方은 現代的 文獻에서는 急慢性氣管支炎 · 氣管支喘息 · 肺氣腫 · 百日咳 等으로 咳嗽로 因하여 顔面이 붓고, 足冷 · 小便不利 · 胃部振水音이 있고 기침때문에 嘔吐하는者, 腎炎 · 네프로세 · 萎縮腎 · 尿毒症 · 動脈硬化症 · 腦出血後의 半身不遂 · 脚氣 · 心臟不全 · 心臟性喘息 · 營養失調 等으로 浮腫하고, 脈沈 · 手足冷 · 小便不利하며 혹은 喘咳 或은 腹水를 隨伴하는 者⁶⁾⁷⁾, 浮腫 · 腹膜炎 · 滲出性肋膜炎 · 肺水腫 · 脚氣等에 多樣하게 應用될 수 있다⁸⁾.

최근들어 産業化에 따른 大氣汚染과 職業的

1) 張機(漢) : 金匱要略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35~36, 1982.

2) 矢數道明 : 韓方處方解說, 大邱, p.625, 1986.

3) 吳克潛 : 古今醫方集成(全四冊), 上海, 上海大衆書局, p.1119, 1980.

4) 矢數道明 : 韓方處方解說, 大邱, pp.624~625, 1986.

5) 李載熙 : 圖說韓方診療要方, 全南光州, 醫學研究社, p.515, 1983.

6) 李載熙 : 圖說韓方診療要方, 全南光州, 醫學研究社, p.516, 1983.

7) 廉泰煥 : 仲景方類聚, 서울, 癸丑文化社, pp. 281~282, 1974.

8) 矢數道明 : 韓方處方解說, 大邱, p.624, 1986.

環境 때문에 呼吸器關聯疾患이 상당히 增加하는 趨勢이다. 그 중 咳嗽·痰飲等은 呼吸器疾患中 一次의이고 普遍的인 症狀이다. 그러나 가장 普遍的인 症狀이지만 慢性的으로 罹患하기 쉬워서 治療面에서는 어려운 面이 있다.

이에 著者는 古方인 金匱要略方中の 하나인 茯苓甘草五味姜辛湯의 方義, 主治證 및 活用範圍에 關한 歷代 醫家들의 文獻과 現代醫家들의 文獻들을 考察한 結果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資料調查 및 研究方法

1. 資料調查

<<金匱要略方論>>으로부터 最近까지의 國內外 文獻 33種을 參考文獻으로 하였다.

1. 江克明 包明蕙 編著 : 簡明方劑辭典.
2. 大塚敬節·矢數道明·清水藤太郎 : 漢方診療醫典
3. 朴炳昆 : 漢方臨床四十年
4. 裴元植 : 漢方臨床學
5. 謝觀 : 東洋醫學大辭典
6. 杉原德行 : 金匱要略講義
7. 徐大椿 撰(清) : 蘭臺軌範(中國醫學大系)
8. 矢數道明 : 韓方處方解說
9. 楊緒性 : 金匱要略
10. 楊醫俠 : 臨床各科綜合診療學
11. 冉小峰 等 : 歷代名醫良方注釋
12. 廉泰煥 : 仲景方類聚
13. 吳謙 外 : 醫宗金鑑
14. 吳克潛 : 古今醫方集成(全四冊)
15. 王云凱 : 中國名醫名著名方
16. 柳志允 : 中醫臨床特講
17. 李克光 主編 : 金匱要略譯釋
18. 李文瑞 主編 : 金匱要略湯證論治
19. 李培生 : 金匱要略講義(東洋醫學叢書)

20. 李載熙 : 圖說韓方診療要方
21. 日本·丹波元簡 編著 : 金匱玉函要略輯義
22. 日本·丹波元堅 編著 : 金匱玉函要略述義
23. 張機(漢) : 金匱要略方論
24. 張機 撰(漢)·徐彬 注(清) : 金匱要略論註(四庫醫學叢書)
25. 張仲景 : 仲景全書
26. 朱甲惠 : 國譯 皇漢醫學(第壹卷)
27. 中國中醫研究院 : 正統金匱要略
28. 中醫大辭典編纂委員會 編 : 中醫大辭典(方劑分冊)
29. 陳修園 著(清) : 金匱方歌括
30. 蔡仁植 : 漢方臨床學(辨證施治)
31. 何任 : 金匱要略新解
32. 何任 編著 : 金匱要略通俗講話
33. 丸山清康 : 全譯 金匱要略

2. 研究方法

1. 茯苓甘草五味姜辛湯方의 構成藥物을 文獻調査하였다.
2. 茯苓甘草五味姜辛湯方의 主治證을 文獻調査하였다.
3. 茯苓甘草五味姜辛湯方의 諸家의 方論을 文獻調査하였다.
4. 茯苓甘草五味姜辛湯方의 適應證을 文獻調査하였다.

III. 本 論

1. 仲景全書⁹⁾

水去嘔止其人形腫者加杏仁主之其證應內麻黃以其人遂痺故不內之若逆而內之者必厥所以然者以其人血虛麻黃發其陽故也¹⁰⁾

9) 張仲景 : 仲景全書, 서울, 大成文化社, p.398, 1989.

10) 譯) 水邪는 除去되고 嘔吐는 그쳤으나 形腫한

茯苓甘草五味姜辛湯方

茯苓四兩 甘草三兩 五味半升 乾姜三兩 細辛三兩 半夏半升 杏仁半升去尖

右七味以水一斗煮取三升去滓溫服半升日三服

2. 金匱要略方論¹¹⁾

水去嘔止其人形腫者加杏仁主之其證應內麻黃以其人遂痺 故不內之 若逆而內之者 必厥 所以然者 以其人血虛 麻黃發其陽故也

茯苓甘草五味姜辛湯方

茯苓四兩 甘草三兩 五味半升 乾姜三兩 細辛三兩 半夏半升 杏仁半升去尖

右七味 以水一斗 煮取三升 去滓 溫服半升日三服

3. 醫宗金鑑¹²⁾

苓甘五味加姜辛半夏杏仁湯方

茯苓四兩 甘草三兩 五味子半升 乾姜三兩 細辛三兩 半夏半升 杏仁(去皮 尖)半升

上七味, 以水一斗, 煮取三升, 去滓, 溫服半升, 日三.

4. 臨床各科綜合診療學¹³⁾

茯苓三錢 甘草二錢 半夏錢半 五味子五分 乾薑三錢 細辛五分 杏仁三錢

慢性濕性氣管支炎喘息用

5. 金匱要略論註¹⁴⁾

水去嘔止其人形腫者加杏仁主之其證應內麻黃以其人遂痺故不內之若逆而內之者必厥所以然者以其人血虛麻黃發其陽故也

症狀이 생긴자는 杏仁을 加하여 主한다. 그 證狀은 麻黃을 넣으면 좋겠으나 그 사람이 痺證이 있기 때문에 麻黃을 쓰지 못한다. 만약 거역하고 麻黃을 넣으면 반드시 厥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血虛한데 麻黃으로 그 陽氣를 發散시키기 때문이다.

註曰形腫謂身腫也肺氣已虛不能遍布則滯而腫故以杏仁利之氣不滯則腫自消也其證應內麻黃者水腫篇云無水虛腫者謂之氣水發其汗則自已發汗宜麻黃也以其人手痺即前手足痺也咳不應痺而痺故曰逆逆而內之謂誤用麻黃則陰陽俱虛而厥然必厥之意尙未明故曰所以必厥者以其人因血虛不能附氣故氣行滯而痺更以麻黃湯藥發洩其陽氣則亡血復汗溫氣去而寒氣多焉得不厥正如新產亡血復汗血虛而厥也¹⁵⁾

苓甘五味加薑辛半夏杏仁湯方

茯苓四兩 甘草三兩 五味子半升 乾薑三兩 細辛三兩 半夏半升 杏仁半升去皮尖

右七味以水一斗煮取三升去滓溫服半升日三服

11) 張機(漢) : 金匱要略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35~36, 1982.

12) 吳謙 外 : 醫宗金鑑, 서울, 大成文化社, p.590, 1983.

13) 楊醫俠 : 臨床各科綜合診療學, 文光圖書公司, pp.74~75, 1975.

14) 張機 撰(漢)·徐彬 注(清) : 金匱要略論註(四庫醫學叢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pp.(734-108)~(734-109)

15) 譯) 註에서 말하길 形腫이란 것은 몸이 부었다는 것이다. 肺氣가 이미 虛하여 遍布하는 作用을 할 수 없어서 붓게 되는 것이니 杏仁으로써 理氣시켜서 氣滯되지 않으면 浮腫은 저절로 消失된다. 그 症狀은 마땅히 麻黃을 넣어야 하는 症狀이니 水腫篇에 이르기를 水가 없으면 虛腫이니 이것은 氣腫인 것이다. 水腫인 경우는 發汗하면 저절로 없어지니 發汗하려면 麻黃을 넣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사람이 손이 저리다는 것은 손발이 저리다는 것이다. 咳嗽는 痺와 應하지 않는데 痺하다는 것은 逆인 것이니, 거역하고 넣었다는 것은 麻黃을 誤用하여 陰陽이 俱虛하여 厥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나 반드시 厥의 意味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厥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血虛하여 氣에 附着이 안되어 氣行이 걸끄럽고 저린데다 다시 麻黃湯으로 그 陽氣를 漏泄하여 亡血하고 다시 發汗하여 溫氣는 사라지고 寒氣가 많은 것이다. 厥이 마치 처음 出産하여 亡血한데 다시 汗出하여 血虛하여 厥한 것과 똑같은 아니다.

6. 蘭臺軌範(中國醫學大系)¹⁶⁾

苓甘五味加薑辛半夏杏仁湯金匱水去嘔止其人形腫者加杏仁主之其證應內麻黃以其人遂庫故不內之若逆而內之者必厥所以然者以其人血虛麻黃發其陽故也

卽 前方加杏仁半升去皮尖煎服法同

7. 簡明方劑辭典¹⁷⁾

苓甘五味加姜辛半夏杏仁湯

<金匱要略>治服桂苓五味甘草去桂加乾姜細辛半夏湯後，水去嘔止，飲邪未盡，其人形腫方。茯苓四兩，甘草，乾姜，細辛各三兩，半夏，五味子，杏仁各半升。水煎 分六次服 日三次。

8. 古今醫方集成¹⁸⁾

苓甘五味薑辛半夏杏仁湯 金匱要略方(漢)

[主治] 治服苓甘五味薑辛半夏湯後水去嘔止。其人形腫者。

[功效] 溫中化濕。宣肺祛痰。

[藥物] 及[用量] 茯苓四兩。甘草 乾姜 細辛各三兩。五味子 半夏 杏仁各五合。

[服法] 清水一斗。煮取三升去滓。溫服五合。日三服。

9. 東洋醫學大辭典¹⁹⁾

[苓甘五味加薑辛半夏杏仁湯] 金匱要略方

[功用] 治服苓甘五味薑辛半夏湯後，水去嘔止，其人形腫者

[藥品] 茯苓四兩 甘草，乾薑，細辛各三兩，五味子，半夏，杏仁各五合

[用法] 清水一斗，煮取三升，去滓，溫服五合，日三服

[雜論] 形氣，肺也，肺主皮毛，爲治節之官，形腫者，肺氣不行，凝取不通故也，方用杏仁

取其苦洩辛開，內通肺氣，外散水氣不用麻黃者，慮其發越陽氣而重傷津液也²⁰⁾。

10. 中國名醫名著方²¹⁾

苓甘五味加姜辛半夏杏仁湯

[來源] <<金匱要略>>

[組成] 茯苓四兩 甘草三兩 五味半升 乾姜三兩 細辛三兩 半夏半升 杏仁半升(去皮尖)

[用法] 以水一斗，煮取三升，去滓，溫服半升，日三。

[功用] 溫肺散寒，化飲降逆。

[主治] 支飲咳嗽，其人形腫者

11. 歷代名醫良方注釋²²⁾

苓甘五味加姜辛半夏杏仁湯

[方劑來源] 冉雪峰大同方劑學載金匱方

[藥物組成] 茯苓四兩 甘草三兩 乾姜三兩 細辛三兩 五味子半升 杏仁半升 半夏半升

[制 法] 上七味，以水一斗，煮取三升，去滓

[劑量服法] 溫服半升 日三服

[注 釋] 查此方亦政治痰飲咳嗽之方，較上方

17) 江克明 包明蕙 編著：簡明方劑辭典，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p.642, 1989.

18) 吳克潛：古今醫方集成(全四冊)，上海，上海大眾書局，p.1119, 1980.

19) 謝觀：東洋醫學大辭典，서울，高文社，p.488, 1975.

20) 譯) 形氣는 肺와 관련되니 肺는 皮毛를 主하며 治節之官이라 몸이 붓는다는 것은 肺氣가 不行하여 騰쳐서 通하지 않는것이니 杏仁의 苦味로써 泄하고 辛味로써 開하는 作用을 取하여 肺氣와 內通하고 外로는 水氣를 散한다. 麻黃을 쓰지않음은 麻黃이 陽氣를 지나치게 發散하여 津液이 傷할까 念慮하여서이다

21) 王云凱：中國名醫名著方，河北，河北科學技術出版社，p.793, 1993.

22) 冉小峰 等：歷代名醫良方注釋，北京，科學技術文獻出版社，pp.316~317, 1983.

16) 徐大椿 撰(清)：蘭臺軌範(中國醫學大系)，여강 출판사，p.785-442

疏裏更進一層, 在金匱原書, 由小青龍條至此, 計五節, 系連續承接, 小青龍條倚息不得臥, 氣水鬱于裏, 而用麻黃, 本條其人形腫, 氣水現于表, 而反不用麻黃, 殊耐探索, 蓋外實可用麻黃, 內亦可用麻黃, 若外假實而內眞虛, 則決不用麻黃, 逆而用之, 必動沖氣, 或庫且厥, 不寧麻黃動沖, 卽姜辛溫宣, 亦可撩動沖低再發, 此本方所以不用麻黃之溫散, 而用杏仁之苦欽也, 杏仁可促助麻黃, 杏仁亦可監制麻黃, 杏仁并可代替麻黃, 用麻黃是求通肺氣, 但有內外虛實, 清溫升降之各別, 推斯意也, 小青龍在傷寒, 是治外邪來水飲. 在本篇, 是治水飲來外邪, 傷寒麻黃湯, 是佐桂枝湯鼓蕩於外, 本書厚朴麻黃湯, 是主厚朴作用於內, 此可看出藥同, 而方制配伍不同, 且方同, 而方之取義適應不同, 今之療咳療喘者, 死守麻黃素, 多服久服, 其亦參合此項義蘊, 而一權衡其輕重是非否耶²³⁾.

12. 金匱要略講議(東洋醫學叢書)²⁴⁾

水去嘔止, 其人形腫者, 加杏仁主之. 其證應內麻黃, 以其人遂庫, 故不內之. 若逆而內之者, 必厥, 所以然者, 以其人血虛, 麻黃發其陽故也.(三十九)

苓甘五加味加薑半半夏杏仁湯方:

茯苓四兩 甘草三兩 五味半升 乾薑三兩 細辛三兩 半夏半升 杏仁半升(去皮尖)

上七味, 以水一斗, 煮取三升, 去滓, 溫服半升, 日三.

[釋義] 本條承上條論述水去形腫的治法. 服藥後水去嘔吐止是裏氣轉和, 但表氣未宣, 故其人尙見形腫, 可于前方中加杏仁一味, 繼續清除余邪, 兼以宣利肺氣, 氣化則飲消, 形腫亦可隨減. 從形腫一證而論, 本可應用麻黃發汗消腫, 但由于其人本有尺脈微, 手足庫等虛證, 故不能用. 若違反病情, 誤用麻黃, 則更耗傷其陽, 必有厥逆之變²⁵⁾.

[選注] 《論注》形腫謂身腫也, 肺氣已虛, 不能遍布, 則滯而腫, 故以杏仁利之, 氣不滯則腫自消也. 其證應內麻黃者, <<水氣篇>>云: 無水虛脹者, 謂之氣, 水, 發其汗

麻黃을 死守하여 多服敎服하니 이 것 역시 이 項의 意味와 不합되는 것이니 그 輕重을 가려 是非를 가려야 한다

24) 李培生 : 金匱要略講議(東洋醫學叢書), 서울, 一中社, pp.146~147, 1990.

25) 譯) 本條는 上條을 이어서 形腫의 治法을 論述하고 있다. 服藥後에 水가 除去되고 嘔吐가 그친 것은 裏氣가 轉和한 것이다. 단 表氣가 宣布되지않아 그 사람이 形腫한 症狀이 보이므로 前方에 杏仁을 加하여 계속해서 남은 邪氣를 除去한다. 더불어 肺氣를 宣利하면 氣化하여 飲이 除去되고 形腫역시 따라서 減하게된다. 形腫一證만으로 論하면 麻黃으로써 發汗하여 消腫할 수있으나, 그 사람의 尺脈이 微하고 手足庫等 虛證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못한다. 만약 病情에 違反하여 麻黃을 誤用하면 그 陽을 損傷하는 故로 厥逆의 變化가 생긴다

23) 譯) 이 處方은 痰飲咳嗽의 政治方이다. 비교적 上方보다 더욱 進一步한 것이다. 金匱要略의 小青龍湯條에서 이 條까지 五節이 連續하여 이어져있다. 小青龍湯條의 倚息不得臥 證狀은 水氣가 속에서 鬱滯되어도 麻黃을 사용하나, 本條의 形腫症狀에서는 水氣가 表에 있으나 반대로 麻黃을 쓰지못한다. 대개 보면 外實한 경우에 麻黃을 쓰며 內實한 경우도 역시 麻黃을 사용한다. 만약 外實하나 內眞虛한 경우에는 결코 麻黃을 사용하지 못한다. 반대로 사용하면 반드시 氣가 沖動하며, 혹 庫하거나 厥한다. 麻黃이 動沖하지 않으면 乾薑의 辛溫한 性味가 宣布하여 다시금 아래를 衝動하여 搖動케한다. 이래서 本方에 麻黃의 溫散한 性質을 사용치 못하고 杏仁의 苦欽한 性質을 利用하는 이유이다. 杏仁은 麻黃의 性질을 도울 수도 있으며 麻黃을 制제할 수도 있으며 麻黃을 杏仁으로 代替할 수도 있다. 麻黃은 肺氣를 通하게 할수 있으나, 內外虛實과 清溫升降의 各各의 區別이 있으니 그 뜻을 잘 헤아려야 한다. 傷寒論에 있는 小青龍湯은 外邪가 水飲으로 온 것을 治療하며 本篇에 있어서는 水飲이 外邪로 온 것을 治療한다. 傷寒의 麻黃湯은 桂枝湯을 도와 外邪에 사용하나 本書의 厚朴麻黃湯은 厚朴이 內에 作用하니 이것은 약은 같아보이나 方劑配伍는 다른 것이며 方은 같으나 方의 뜻을 취해 사용함은 같지않다. 지금의 咳喘을 治療하는 것은

則自已。發汗宜麻黃也，以其人遂痺，即前手足痺也，咳不應痺而痺，故曰逆。逆而內之，謂誤用麻黃，則陰陽俱虛而厥，然必厥之意尙未明，故曰所以必厥者，以其人因血虛不能附氣，故氣行澁而痺，更以麻黃陽藥發泄其陽氣，則亡血復汗，溫氣去而寒氣多，焉得不厥，正如新產亡血復汗，血虛而厥也。

《高注》：水去嘔止，而形腫者，虛氣薄於分肉而未行之候，杏仁利肺，故加之。痺，兼脈之沈微，并手足厥逆而言，其症應內麻黃者，以杏仁利肺，麻黃泄氣，肺利氣泄，則虛氣之薄於分肉者自散，故二者爲消腫之要藥。今其人脈沈微而手足痺，況曾經厥逆乎？故單加杏仁，而不內麻黃者此也。若逆其法而內之，則陽氣益虛，故厥，蓋陽附於陰，氣根於血，陰血既虛，不任麻黃之泄其陽氣也²⁶⁾

13. 金匱要略²⁷⁾

[原文] 水去嘔止，其人形腫者，加杏仁主之。其證應內麻黃，以其人遂痺，故不內之。若逆而內之者，必厥，所以然者，以其人血虛，麻黃發其陽故也。(三十九)

苓甘五味加薑辛半夏杏仁湯方：

茯苓四兩 甘草三兩 五味半升 乾薑三兩 細辛三兩 半夏半升 杏仁半升(去皮尖)

26) 譯) 水가 除去되고 嘔吐가 그쳤으나 形腫한 者는 虛氣가 分肉間에 薄하여 運行하지 못하는 것이니 杏仁을 加하여 肺를 이롭게한다. 痺症과 脈沈微 手足厥逆은 麻黃을 넣는 증상을 말한다. 杏仁은 利肺하고 麻黃은 泄氣하여 肺利하고 氣泄하면 分肉間에 虛氣가 薄한 것이 스스로 散한다. 그래는 杏仁과 麻黃은 消腫하는 要約인 것이다. 지금 그 사람이 脈沈微하고 手足痺한데 어떻게 厥逆이 되지않겠는가? 故로 杏仁을 加하고 麻黃을 넣지않는 것이 이것이다. 만약 그 法을 어기고 넣으면 陽氣가 더욱 虛해져 厥하게 된다. 대개 陽은 陰에 붙어있고 氣는 血에 根本하며 陰血이 이미 虛하니 麻黃으로 陽氣를 泄해서는 안된다.

上七味，以水一斗，煮取三升，去滓，溫服半升，日三服。

[提要] 論水去形腫的治療

[解析]

水在胃爲冒，爲嘔；水在肺爲喘，爲腫。服苓甘五味薑辛夏湯後，胃中之水飲得溫化而嘔吐止，是裡氣已和之候。前第二條論支飲“其形如腫”與本條“其人形腫”近似，但有所不同。前者“形如腫”，論支飲之外候；本條“形腫”是因肺衛之氣鬱滯不通，餘邪未盡，飲迫於肺所致。就形腫一證而論，可與麻黃發汗消腫。其人“尺脈微”，“手足痺”等證尙存，眞陽虛弱之候，故捨而不用。若醫者不顧其虛，只見形腫而妄用麻黃，企圖汗出以消腫，使虛者更虛，陽氣更損，而致厥逆的病變。文中之意，病人不獨陽虛，其陰(血)亦虛，此時，故於苓甘五味薑辛夏湯中加杏仁宣利肺氣，氣化則飲去，腫消²⁸⁾。

[選注]

徐彬：“形腫謂身腫也，肺氣已虛，不能遍布，則滯而腫，故以杏仁利之，氣不滯則腫自消也。其

27) 楊緒性：金匱要略，서울，아울로스출판사，pp. 358~359，1994.

28) 水가 胃에 있으면 冒와 嘔가 된다. 水가 肺에 있으면 喘이 되고 腫이 된다. 苓甘五味姜辛夏湯服用後 胃中の 水飲이 溫和하여 嘔吐가 그친 것은 離氣가 이미 和한 證候이다.

前第二條에서는 支飲을 論하고 있으며，그 “其形如腫”과 本條의 “其人形腫”은 비슷하나 같지않다. 前者인 “形如腫”은 支飲의 外候를 論하는 것이며，本條의 “形腫”은 肺衛氣가 鬱滯하고 不通하여 飲邪가 未盡하고 飲이 肺에 逼迫하는 所致이다. 形腫一證만 가지고 말한다면 麻黃으로 發汗시켜 消腫하는 것이 可能하다. 그 사람이 尺脈微 手足痺 等證이 있으면 眞實로 陽虛의 徵候니 麻黃을 써서는 안된다. 만약 醫師가 그 虛함을 考慮하지않고 단지 形腫한 상태만 보고서 麻黃으로 發汗시켜 消腫하려고 誤用하면 虛한 것을 더욱 虛하게 하며 陽氣가 거둬 損傷되게 되어 厥逆이라는 病變에 이른다. 文中의 뜻은 病人이 陽虛만있는 것이 아니라 陰血 또한 虛한 것이니 이때 苓甘五味姜辛夏湯에 杏仁을 加하여 肺氣를 宣利하고 氣化하면 飲邪가 除去하니 浮腫이 消失된다

證應內麻黃者，<<水氣>>篇云：無水虛脹者，謂之氣，水，發其汗則自已。發汗宜麻黃也，以其人遂痺，即前手足痺也，咳不應痺而痺，故曰逆。逆而內之，謂誤用麻黃，則陰陽俱虛而厥，然必厥之意尚未明，故曰所以必厥者，以其人因血虛不能附氣，故氣行澁而痺，更以麻黃陽藥發泄其陽氣，則亡血復汗，溫氣去而寒氣多，焉得不厥，正如新產亡血復汗，血虛而厥也。”（《論注》）

高學山：“水去嘔止，而形腫者，虛氣薄於分肉而未行之候，杏仁利肺，故加之。痺，兼脈之沈微，并手足厥逆而言，其症應內麻黃者，以杏仁利肺，麻黃泄氣，肺利氣泄，則虛氣之薄於分肉者自散，故二者為消腫之要藥。今其人脈沈微而手足痺，況曾經厥逆乎？故單加杏仁，而不內麻黃者此也。若逆其法而內之，則陽氣益虛，故厥，蓋陽附於陰，氣根於血，陰血既虛，不任麻黃之泄其陽氣也。”（《高注金匱要略》）

[方論]

陳元犀：“加杏仁者，取其苦泄辛開，內通肺氣，外散水氣，麻黃亦肺家之藥，何以不用？慮其發越陽氣而重傷津液也。”（《金匱方歌括》）

[類方證治]

- (1) 《方極》：治前方證（苓甘岡味辛夏湯證）而微浮腫者。
- (2) 《類聚方廣義》：治痰飲家平日苦咳嗽者，此方以栝萸實代半夏，白蜜為膏，用之甚效。（以上均轉引自《今釋》）
- (3) 咳嗽而動悸及嘔吐者，有鬱鬱不安之感者，呼吸困難者，浮腫者，肺氣腫。（《漢方與漢藥》）

[現代研究]

適應證：老年性慢性氣管支炎，肺氣腫或有輕度的肺水腫，而且有身腫者

14. 金匱要略湯證論治²⁹⁾

苓甘五味加姜辛半夏杏仁湯

[原文節錄] 水去嘔止，其人形腫者，加杏仁主之。其證應內麻黃，以其人遂痺，故不內之。若逆而內之者，必厥，所以然者，以其人血虛，麻黃發其陽故也。

[方組] 茯苓四兩 甘草三兩 五味半升 乾姜三兩 細辛三兩 半夏半升 杏仁半升(去尖尖)
右七味，以水一斗，煮取三升，去滓，溫服半升，日三服

[臨證參考用量] 茯苓12克 甘草6克 細辛9克 乾姜9克 五味子7.5克 半夏7.5克 杏仁7.5克
上7味，以水1000毫升，煮取300毫升，去滓，分3次溫服，每次服100毫升

[功效] 宣疏肺氣

[主治] 肺寒支飲，痰多清稀，胸悶嘔逆，心悸頭眩，頭面虛浮，其形如腫，舌苔白膩，脈沈弦滑，尺部無力

[方論] 本方為復變腫之證治

本方證乃支飲咳而冒嘔證，服苓甘五味姜辛半夏湯後，水飲已減，胃氣和降，然而在肺之水飲未盡，肺氣宣降失司，水飲溢於肌表，發為形腫，即所謂“其人形腫者”。故治當于前方桂苓五味甘草去桂加乾姜細辛半夏湯加杏仁一味，開降肺氣，飲散水下，以溫肺化飲，宣疏肺氣，通調水道，其腫自消矣。

本方證既屬水溢肌表，理應加麻黃，即所謂“其證應內麻黃”以“開鬼門”發汗利水；但病家陽虛，且經“青龍湯下已”有“尺脈微手足厥”等證，故不需加麻黃。否則，錯誤的應用麻黃，會使陽氣耗散，陰血損傷，從而引起厥逆之變證。即所謂“所以然者，以其人血虛，麻黃發其陽故也”³⁰⁾。

30) 譯) 本方證은 支飲과 咳嗽 冒證 嘔吐證에 苓甘五味姜辛半夏湯 服用後에 水飲이 減少하고 胃氣和降하였으나 肺에 水飲이 未盡하여 肺氣의 宣降作用의 失調로 水飲이 肌表에 外溢하여 形腫이 發하게 된 것으로 所謂 “其人形腫者”라고 하는 것이다. 治療는 前方인 桂苓五味甘草去桂加乾薑細辛半夏湯에 杏仁一味를 加하여 肺氣를 開降하여 飲邪를 흠뜨리고 水를 下하고 溫肺化飲하고 宣疏肺氣, 水道通調하게 되면 그 浮腫이 저절로 消失된다. 本方은 水邪가 肌表로 흘러넘쳐서 된 證이니 麻

29) 李文瑞 主編：金匱要略湯證論治，北京，中國科學技術出版社，pp.448~449, 1993.

《金匱要略論注》曰：形腫，謂身腫也。肺氣已虛，不能遍布，則滯而腫，故以杏仁利之，氣不滯則腫自消也。其證應內麻黃者，《水氣篇》云：無水虛脹者謂之水氣，發其汗則自已，發汗宜麻黃也。以其人遂廡，即前手足廡也。咳不應廡而廡，故曰逆，逆而內之，謂誤用麻黃，則陰陽俱虛而厥”。(徐忠可)

《金匱要略方論本義》曰：形腫者，氣浮也。即支飲中如腫之證也。陽浮弱於外，而陰盛凝於裏也。前方加杏仁降氣爲主治，氣降而飲自行，腫自消矣。如腫之證，似四肢之溢飲，而非四肢之溢飲，乃支飲也。溢飲之水在皮膚，支飲如腫之水在分肉之中，經絡之內也。所以皮膚之水可發汗，而經絡分肉之水不可發汗也。況如腫之證，陽已外浮，陰已內盛，何可重汗之以亡其陽？若逆而治之，其陽愈衰，必成厥逆之證，見陰盛之不宜更弱其陽也。其人血虛者，即經絡分肉之間，遂道空虛也，雖是血虛，竅爲氣弱，既爲氣弱，即爲陽浮，麻黃發越陽氣，愈無內固之守，此所以以杏仁降氣行水於內，而具溫中理脾 不同于麻黃之治溢飲也。此仲景爲正陽願慮者深切也³¹⁾。(魏念庭)

總之，本方爲服前桂枝茯苓五味甘草去桂加乾姜細辛半夏湯出現浮腫之證治。爲支飲變證之四變

表 解

病因病機	服苓甘五味姜辛夏湯後形腫
治 則	宣疏肺氣
主要脈證	症狀；肺寒支飲 痰多清稀 胸悶嘔逆 心悸頭眩 頭面虛浮 其形如腫 苔白膩 脈象；沈弦滑 尺部無力
配 伍	苓甘五味姜辛夏湯；逐飲止嘔 杏仁；開降肺氣 飲散水下

黃을 加하는 것이 應當하니 所謂 “其證應內麻黃”하여 鬼門을 열어 發汗利水케 한다는 것이 다; 단 病人이 陽虛하고, 또 靑龍湯으로 下한 후 尺脈微 手足厥等證이 있으므로 麻黃을 쓰지 못한다. 그렇지 않고 麻黃을 誤用하면 陽氣가 耗散되고 陰血이 損傷되어 厥逆의 變證이 發하니 所謂 “血虛한 사람인데 麻黃으로 그 陽氣를 發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類方鑑別] 參考桂苓五味甘草湯條

[應用範圍]

1. 治前方證(苓甘姜辛夏湯)而微浮腫者(《方極》)
2. 痰飲家平日咳嗽者，此方以瓜瓞實代半夏，白蜜爲膏，用之甚效。(《類聚方廣義》)

現代臨證，本方亦常用於慢性氣管炎，肺氣腫，肺心病等而見本方證者

15. 中醫大辭典(方劑分冊)³²⁾

苓甘五味加姜辛半夏杏仁湯《金匱要略》方
茯苓四兩 甘草 乾姜 細辛各三兩 半夏 五味子 杏仁各半升。

水煎 分六次服 日三次。

治服桂苓五味甘草去桂加乾姜細辛半夏湯後，水去嘔止，飲邪未盡，其人形腫者

31) 譯) <<金匱要略方論本義>>에서 말하길 形腫한 것은 氣浮한 것이니 支飲中에 마치 부은 듯한 證狀으로 外陽은 浮弱하고 裏陰은 盛하여 凝한 형상이다. 前方에 杏仁을 加하여 降氣함으로써 主治하는 것이니 氣降하면 飲이 스스로 行하여 浮腫이 스스로 消滅한다. 形腫의 症狀은 四肢의 溢飲과 비슷하나 四肢의 溢飲은 아니고 支飲인 것이다. 溢飲의 水는 皮膚에 있는 것이고, 浮腫같은 支飲의 水는 分肉의 가운데 經絡의 內部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皮膚의 水는 發汗함이 可하나 經絡分肉의 水는 發汗함이 不可하다. 하물며 形腫의 證狀은 陽은 이미 外浮하고 陰은 이미 內盛하니 어찌 거듭 發汗하여 그 陽을 망하겠는가? 만약 거꾸로 治하면 그 陽은 이미 衰하여 반드시 厥逆證이 생긴다. 陰盛한데 그 陽을 더욱 弱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 사람이 血虛한 것은 經絡分肉間이 空虛한 것이다. 비록 血虛하여 竅가 氣弱하고, 氣弱하면 陽浮하게 되니 麻黃이 陽氣를 發越하게되어 內部를 堅固하게 지키지 못하니 이것은 杏仁을 써서 內에서 降氣行水케 하고 溫中理脾케 하니 麻黃으로써 溢飲을 治하는 것과 같지않다. 이와같이 仲景이 正陽을 願慮함이 深切하다

32) 中醫大辭典編纂委員會 編：中醫大辭典(方劑分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297, 1983.

16. 金匱要略新解³³⁾

[原文] 冊八, 水去嘔止, 其人形腫者, 加杏仁主之. 其證應內麻黃, 以其人遂痺, 故不內之. 若逆而內之者必厥, 所以然者, 以其人血虛, 麻黃發其陽故也

苓甘五味加姜辛半夏杏仁湯方

茯苓四兩 甘草 細辛 乾姜各三兩 五味子 半夏 杏仁(去皮尖)各半升

上七味, 以水一斗, 煮取三升, 去滓. 溫服半升, 日三服.

[解釋] 冊八條承前條, 也是服藥後的轉變. 水去了, 嘔止了, 病人却出現身形浮腫的變證, 這是由于肺壅塞不通所致. 照理可用麻黃去通它, 但是前面說過這種病人脈象寸沈尺微, 可見是血虛孤陽無依的. 如果用了麻黃, 就會造成肢臂麻木或者發厥等傷陰亡陽的情況. 因而一般不宜採用麻黃. 可以在苓甘五味姜辛半夏湯裏加杏仁來散肺的壅塞³⁴⁾.

17. 金匱玉函要略輯義³⁵⁾

水去嘔止 其人形腫者 加杏仁主之 其證應內麻黃 以其人遂痺 故不內之 若逆而內之者必厥 所以然者以其人血虛 麻黃發其陽故也

[徐] 形腫 謂身腫也 肺氣已虛 不能遍布 則滯而腫 故以杏仁利之 氣不滯則腫自消也 其證應內麻黃者 水腫篇云 無水虛脹者 謂之氣水 發其汗則自己 發汗宜麻黃也 以其人遂痺 卽前手足痺也 逆而內之 謂誤用麻黃 則陰陽俱虛而厥 然厥之意尚未明 故曰所以必厥者 以其人因血虛不能附氣 故氣行澁而痺 更以麻黃湯藥 發泄其陽氣 則亡血復汗 溫氣去而寒氣多 焉得不厥 正如新產亡血復汗 血虛而厥也

苓甘五味加姜辛半夏杏仁湯方

茯苓四兩 甘草三兩 五味子半升 乾姜三兩 細辛三兩 半夏半升 杏仁半升去皮尖

右七味 以水一斗 煮取三升 去滓 溫服半升

33) 何任：金匱要略新解，浙江，浙江科學技術出版社，pp.98~100, 1982.

日三服 服字 依俞本補

18. 金匱玉函要略述義³⁶⁾

水去嘔止 其人形腫者

[尤] 血虛之人 陽氣無偶 發之最易厥脫 麻黃不可用矣 杏仁味辛能散 味苦能發 力雖不及與證適宜也 按水去 卽心下之水去 故嘔止 是半夏之功著矣 然內水外溢 以爲形腫 故治癉遵前法 而表水非麻黃不能驅除 蓋杏仁之與麻黃 其性雖有緊慢之別 而其功用 則稍相均 以其人血虛 故以此易彼耳 其人遂痺者 前段手足痺也 厥者 亦卽前段手足厥逆 倘得麻黃 以亡其陽 則更甚也 血虛者 尺脈微之應也 此無救逆之法 願證既至此 則宜別處固陽救液之藥 非前方如減之所治矣³⁷⁾

34) 譯) 冊八條는 前條를 繼承한 것으로 服藥後 轉變을 말한다. 水去嘔止하였으나 病人의 身形에 浮腫이 생긴 變證의 根據와 解釋이다. “水가 肺에 있으면 喘과 腫이 된다”는 說法이다. 이것은 肺가 壅塞하여 不通한 所致이다. 理致의 으로는 麻黃을 써서 通하게 하여야 한다. 病人의 脈狀이 寸沈尺微하여 血虛하고 陽이 의지할 것이 없는 證狀을 보였는데 만약 麻黃을 쓰면 肢臂麻木 或 發厥等 傷陰亡陽의 情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麻黃을 쓰는 것이 마땅치않다. 上湯에 杏仁을 加하여 肺의 壅塞을 散한다. 비록 杏仁의 力量이 輕微하나 이것이 病證에 合當한 것이다

35)

36) 日本·丹波元堅 編著：金匱玉函要略述義，北京，人民衛生出版社，p.60, 1983.

37) 譯) 血虛한 者는 陽氣가 의지할 것이 없다. 陽氣를 發하면 厥脫하기가 쉬우니 麻黃을 쓰지 못한다. 杏仁의 辛味는 능히 散하고 苦味로 능히 發하니 藥力은 비록 부족하여도 證은 마땅하다. 水去는 心下의 水가 去한다는 것이니, 嘔吐가 그치는 것은 半夏의 功이다. 內水가 外로 넘쳐서 形腫하게 되면 前法에 의존하여야 하니 表水는 麻黃이 아니면 驅除 하지 못하니 대개 杏仁과 麻黃은 그 性質이 비록 緊慢의 차이는 있으나 그 功用은 서로 비슷하다. 그 사람이 血虛하면 杏仁으로 麻黃을 代替하여야 한다. 그 사람이 痺한 者는 手足이 痺한 것이니 厥은 前段의 手足厥逆이니

19. 金匱方歌括³⁸⁾

苓甘五味薑辛半夏杏仁湯 治 服前藥 水去嘔止 其人形腫者 肺氣不行也 加杏仁主之 其證應內麻黃 以其人遂痺 故不內之 若逆而內之者 必厥 所以然者 以其人血虛 麻黃發其陽故也

茯苓四兩 甘草 乾薑 細辛各三兩 五味 半夏杏仁各半升

右七味 以水一斗 煮取三升 去滓 溫服半升 日三服

歌曰 咳輕嘔止腫新增 面腫須知肺氣凝 前劑杏加半升煮 可知一味亦規繩 男元犀按 形氣肺也 肺主皮毛 爲治節之官 形腫者 肺氣不行 凝聚不通故也 加杏仁者 取其苦泄辛開 內通肺氣 外散水氣 麻黃亦肺家之藥 何以不用 慮其發越陽氣而重傷津液也³⁹⁾

20. 金匱要略通俗講話⁴⁰⁾

水去了，嘔止了，病人又出現身形浮腫的變證，根據尤在涇的解釋“水在肺者，爲喘爲腫”的說法，這是由于肺壅塞不通所致，照理可用麻黃去通它，但是前面說過這種病人脈象寸沈尺微，可見是血虛孤陽無依的，如果用了麻黃，就會造成肢臂麻木或者發厥等傷陰亡陽的情況，因而一般不宜採用麻黃，可以在上湯裏加杏仁來散肺的壅塞，雖然杏仁力量輕微些，但是與病證是適合的

21. 金匱要略譯釋⁴¹⁾

水去嘔止 其人形腫者 加杏仁主之 其證應內麻黃 以其人遂痺 故不內之 若逆而內之者 必厥 所以然者 以其人血虛 麻黃發其陽故也。(三十九)

苓甘五味姜辛半夏杏仁湯方:

茯苓四兩 甘草三兩 五味半升 乾姜三兩 細

麻黃을 쓰면 亡陽 더욱 심해진다. 尺脈微는 血虛한 證狀이니 逆法을 써서는 안된다. 證狀이 이미 여기에 이르면 마땅히 陽을 공고히 하고 液을 救하는 藥을 써야지 前方을 加減해서 치료해서는 안된다

辛三兩 半夏半升 杏仁半升(去皮尖)

上七味 以水一斗 煮取三升 去滓 溫服半升 日三服

語譯 服用苓甘五味姜辛半夏湯後 水飲消除嘔吐停止 但病人身體浮腫的 應用前方加杏仁主治; 這個症候本來應該加入麻黃 但因為病人手足感到麻痺 故不宜加入; 如果違反了禁忌而用麻黃 病人就會手足發涼 這是因為病人血虛 麻黃又能發汗使病人亡陽的緣故

提要 論述脾氣雖復而肺衛氣滯變腫的證治及其用藥禁忌

闡析 本條宜分兩段理解

“水去嘔止……加杏仁主之”爲第一段 論述肺衛氣滯變腫的證治. 服用苓甘五味姜辛半夏湯後中焦脾胃之氣漸復 故“水去嘔止”然而又見“其人形腫者”正如徐彬所云:“肺氣已虛 不能遍布 則滯而腫”說明肺氣虛滯 表氣未宣而衛氣不能外達皮毛 肺氣不得清肅宣行 通調水道 水氣泛溢 皮膚故見身腫 此與反復咳嗽有關. 其治療則宜前方“加杏仁主之”辛開苦泄 宣導肺氣 肺爲水之上源 肺氣通利 氣降水行 寒飲得散而形腫自消. 苓甘五味姜辛半夏杏仁湯有溫陽散寒 利肺滌陰之效 雖溫而不發散 利氣而消腫

38) 陳修園 著(清): 金匱方歌括,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75, 1980.

39) 譯) 歌에서 말하길 咳嗽가 줄고 嘔吐가 그치지만 浮腫이 새로 생기고, 얼굴이 붓는 것은 肺氣가 凝取된 것임을 알수있다. 前方에 杏仁半升을 加하고 끓여서 가히 一味 역시 規繩함을 안다. 男元犀가 按하기를 形氣는 肺와 관계있다. 肺는 皮毛를 主하고 治節之官이니 形腫한 것은 肺氣가 不行하고 凝取하여 通하지 않기 때문이다. 杏仁을 加하여 苦味로 泄하고 辛味로 開하여 안으로는 肺氣와 通하고 밖으로는 水氣를 散한다. 麻黃은 肺家의 藥이나 왜 못 쓰는가하면 그 陽氣를 發越하여 津液을 重히 傷할까 念慮하여서이다

40) 何任 編著: 金匱要略通俗講話,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74~75, 1979.

41)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373~376, 1993.

“其證應內麻黃……麻黃發其陽故也。”爲第二段闡述不應納麻黃的用藥禁忌及其機理。《水氣病》篇第十八條謂“腰以上腫 當發汗乃愈”第二十六條有“水，發其汗即已”之文；溢飲水在肌膚 本篇第二十七條有青龍湯治之。而本條有“其人形腫”故曰“其證應內麻黃”以發汗消腫 使水隨汗出而解。之所以不加麻黃者 仲景自釋曰：“以其人遂庫 故不內之” 是因此條支飲患者曾有三十六條所具備的“寸脈沈 尺脈微 手足厥逆……手足痺”等氣血虛庫之證 故不能加用麻黃 只宜在原方中加一味杏仁利氣消腫便可以了。 “若逆而內之者必厥。所以然者 以其人血虛 麻黃發其陽故也”。是進一步闡述血虛患者誤用麻黃後的副作用。麻黃爲發汗峻藥 而汗乃心液 爲血所化 血汗同源所以 發汗即能散泄陽氣(包括血中之陽的營氣 衛外之陽的衛氣) 亦能傷耗津液和陰血。氣爲血腫 血生於氣 血虛而氣無所附 則導致陰陽氣血俱虛 而見四肢厥冷 肢體麻木 故血虛患者縱有形腫之證 必須忌用麻黃發汗。

關於“其人形腫”之理 徐彬與魏念庭都認爲虛是根本 而徐氏強調氣滯 魏氏認爲陰凝於裏 “即支飲中如腫之證也”，尤在涇與黃元御認爲肺衛氣壅。以上見解 當合參之⁴²⁾。至于對原文的評述，

《金匱要略注評》較爲中肯。

選注 黃元卿：服苓甘五味姜辛半夏後 水去嘔止 其人形腫者 此衛氣之鬱 宜加杏仁利肺壅而泄衛鬱。腫家應內麻黃以泄衛鬱 而其人服小青龍後 陽隨汗泄 手足麻痺 故不內之 若逆而內之者 必手足厥冷；所以然者 以汗泄血中溫氣 其人陰中之陽已虛 麻黃復泄其血中之陽氣故也。（《金匱

나 發散하지 못하면 利氣로써 消腫하게 된다. “其證應內麻黃……麻黃發其陽故也.”이 第二段으로 麻黃을 써서는 안된다는 것과 그 理由를 說明하고 있다. 第十八條에서는 “腰以上の 浮腫에는 마땅히 發汗하면 愈한다.” 第二十六條에서는 “水는 發汗하면 된다”는 文章이 있다; 溢飲水가 肌膚에 있을 때는 本篇 第二十七條에 있는 青龍湯으로 治한다. 本條에 있는 “그 사람이 形腫”하기 때문에 “그 證狀은 麻黃을 쓰는 것에 該當하니” 發汗하므로써 消腫하게 되니 水가 汗을 따라나와 解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麻黃을 加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仲景은 스스로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그 사람이 遂庫하는 故로 넣지 못한다.” 이 것은 支飲患者가 三十六條에서 언급한 “寸脈沈 尺脈微 手足厥逆……手足痺”等 具體的으로 氣血虛庫한 證狀을 보이므로 麻黃을 加할 수 없다고 說明하고 있으며 且只 原方中에 杏仁을 加하여 利氣消腫하는 것은 可能하다고 하였다. “만약 여기고 麻黃을 넣으면 반드시 厥한다. 그것은 그 사람이 血虛하기 때문에 麻黃이 그 陽氣을 發散시키기 때문이다” 이 文章은 進一步하여 血虛患者에게 麻黃을 誤用한 後에 일어나는 副作用을 說明하는 것이다. 麻黃은 發汗峻藥이다. 汗은 心液이며 血이 化한 것이니 血과 汗은 同源이니 發汗하면 陽氣(血中の 陽인 營氣와 衛外의 陽인 衛氣를 包含)를 散泄할 뿐만아니라 津液과 陰血도 損傷하게 된다. 氣에 의해 血腫이 뒹은 血이 氣에서 생기기 때문이며 血虛하면 氣가 附着할 수 없어서 陰陽氣血이 俱虛하여 四肢厥冷 肢體麻木症狀이 나타나므로 血虛患者가 形腫證이 있으면 반드시 麻黃으로 發汗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其人形腫”의 理由를 徐彬과 魏念庭은 모두 虛가 根本이라고 認定하고 있으며 徐氏는 氣滯를 強調하며 魏氏는 陰이 裏에서 凝滯함이라 認定하였다. “即支飲中如腫之證也”에서 黃元御은 肺衛氣壅으로 認定하고 있다. 以上の 見解는 參考하기에 合當하다.

42) 譯) 本條는 두문단으로 나누어 理解해야하는데, “水去嘔止……加杏仁主之”가 第一段으로 肺衛氣가 滯하여 浮腫으로 變한 證治을 論述한다. 苓甘五味姜辛半夏湯을 服用後 中焦脾胃의 氣가 漸次 回復한 故로 “水去嘔止”하게 되었는데 다시 “그 사람이 浮腫이 생기는 것”을 徐彬은 “肺氣가 이미 虛하여 遍布作用이 不能해지므로 氣滯하여 浮腫이 된다” 하고 說明하였다. 肺氣가 虛하여 滯하면 表氣가 宣布되지 못하고 衛氣가 皮毛까지 到達하지 못하여 肺氣가 清肅宜行作用, 通調水道作用이 안되므로 水氣가 皮膚로 泛溢하므로 身腫이 나타나며 이것은 咳喘을 反復하는 것과 有關하다. 그 治療는 意當히 前方에 “杏仁을 加하여 主하는 것이다.” 杏仁의 辛苦한 性味는 開泄作用을 하여 肺氣를 先導한다. 肺는 水의 上源으로서 肺氣가 通利하여서 氣가 내려가면 水도 따라가니 寒飲이 흠어지면 形腫은 저절로 消滅된다. 苓甘五味姜辛半夏杏仁湯은 溫陽散寒하며 利肺滌陰하는 效果가 있다. 비록 溫하

懸解》)43)

中國中醫研究院中醫研究生班: 其形如腫 爲心下之飲難去 但飲氣外溢 肺衛壅滯尙未宣通. 本當用麻黃發汗以消腫 但其人素有不足 又因發汗陰陽俱虛 寸沈尺微. 而仲景早有尺脈微不可發汗之明訓 故不可再用麻黃復傷其陰 虛其陽 只可用杏仁利肺壅而泄衛鬱 肺衛宣通則水腫自消. 以上三家(尤怡, 徐彬, 黃元卿)注釋 無非此意. (《金匱要略注評》)44)

按語

- (1) 本條說明“血虛忌汗”法 源自《內經》“奪血者無汗”的理論. 仲景認爲衄家, 亡血家, 尺中遲者 均不可發汗. 血虛之人慎用辛溫發汗 違之則厥. 而後世養血解表法則是其發展.
- (2) 仲景在治痰飲方中加杏仁行氣順氣 厚朴大黃湯之用厚朴 枳實治支飲 對飲病的治療有相得益彰的作用 蓋氣行則飲動也. 葉天士用小青龍湯 亦往往去麻黃而改用杏仁 亦宗仲景之意也.

22. 漢方診療醫典45)

[苓甘姜味辛夏仁湯] 軽い肺水腫に用いる. 微弱の脈で呼吸困難があり, 痰が稀薄で, 血色がわるく, 浮腫のみられるものに用いる.

苓甘姜味辛夏仁湯(りょうかんきょうみしんげにんとう)

本方は 小青龍湯に似て, 喘鳴, 咳嗽, 水腫に使用する方劑であるが, 小青龍湯中の麻黃, 桂枝,

- 43) 譯) 黃元卿은 苓甘五味姜辛半夏湯 服用後 水氣는 除去되고 嘔吐는 그쳤으나 浮腫이 생긴者는 이는 衛氣가 鬱滯된 것이니 杏仁을 加하여 肺壅을 풀어주고 衛鬱을 泄한다.

浮腫이 있는 자는 應當히 麻黃을 넣어서 衛鬱을 泄하여야하나 그 사람이 小青龍湯을 服用한後 陽氣가 汗을 따라 泄하여 手足이 麻痺되므로 그것을 넣지 못하는데 만약 거스르고 넣으면 반드시 手足이 厥冷하게 된다; 그 이유는 汗을 따라 血中의 溫氣가 泄하므로 그 사람의 陰中의 陽이 이미 虛한데 麻黃으로 다시 그 血中의 陽氣를 泄하기 ため이다 라고 金匱懸解에서 말하였다.

芍藥の 代りに, 茯苓, 杏仁を加えた藥方であるから, 發熱, 惡寒, 頭痛, 身體疼痛 などの症狀がなく, 貧血の 傾向があり, 脈は弱く, 手足は冷えやすく, 息切れ, 貧血がある。そこで 本方は 喘鳴, 息切れ, 貧血があり, 冷え症で, 疲れやすいものを目標に用いる。

肺氣腫, 慢性氣管支炎, 氣管支喘息, 心臟瓣膜症, 慢性腎炎 などに本方を用いる機會がある。

本方は 茯苓, 甘草, 乾姜, 五味子, 細辛, 半夏, 杏仁の7味からなり, 五味子は半夏, 杏仁とともに喘咳を治し, 乾姜, 細辛は一種の熱藥で, 血行をよくし, 前記の諸藥と協力して喘咳を治する働きを助ける. 茯苓は利尿の效があつて, 浮腫を去り, 甘草は以上の諸藥の働きを調和し, 茯苓と組んで, 動悸, 息切れを治する46).

- 44) 譯) 中國中醫研究院中醫研究生班에서는 그 形體에 浮腫이 있는것은 心下의 飲이 비록 去하였으나 但 飲氣가 外溢하여 肺衛가 壅滯하여 宣通하지 못하기 ため이니 本래 마땅히 麻黃으로 發汗하여 浮腫을 없애나 그 사람이 平素 稟賦가 不足한데 또 發汗시키면 陰陽이 모두 虛해지고 寸脈이 沈하고 尺脈이 微해진다. 그래서 仲景은 일찍이 尺脈이 微하면 發汗하지 말라고 하였다. 麻黃을 다시 써서 그 陰을 거듭 傷하고 그 陽이 虛해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但只 杏仁을 써서 肺壅을 이롭게 하고 衛鬱을 泄하여 肺衛가 通하면 水腫이 스스로 消滅된다라고 金匱要略注評에서 말하였다.

- 45) 大塚敬節・矢數道明・清水藤太郎 : 漢方診療醫典, 東京, 南山堂, pp.81,427~428,537, 1969.

- 46) 譯) 가벼운 肺水腫에 사용한다. 脈微弱, 呼吸困難, 痰稀薄, 血色이 좋지않고, 浮腫이 보이는데에 사용한다.

本方は 小青龍湯과 類似하게 喘鳴, 咳嗽, 水腫에 사용하는 方劑인데 小青龍湯의 麻黃, 桂枝, 芍藥대신에 茯苓, 杏仁을 加味한 方으로 써 發熱 惡寒 頭痛 身體疼痛等의 症狀은 없고 貧血의 경향, 脈弱, 手足冷, 息切, 貧血이 있다. 그래서 이 方은 喘鳴, 息切, 貧血이 있고 冷症, 쉽게 피로해지는데 目標를 두고 사용한다.

肺氣腫, 慢性氣管支炎, 氣管支喘息, 心臟瓣膜症, 慢性腎炎 등에 本方을 사용할 機會가

苓甘姜味辛夏仁湯(りょうかんきょうみしんげ
にんとう)

茯苓, 半夏, 杏仁 各4. 五味子3. 甘草, 乾姜, 細
辛 各2.

23. 全譯 金匱要略47)

[苓甘五味加薑辛半夏杏仁湯の證]

水去り嘔止み, その人の形腫れたるは, 杏仁
を加えてこれを主らしむ。その證, 麻黃を内れ
るに應るも, その人遂に痺するを以ての故に
これをいれず。もし逆してこれをいれるれば必ず
厥す。しかる所以は, その血虚するに, 麻黃そ
の陽を發するを以てなり。

苓甘五味加薑辛半夏杏仁湯の方

茯苓四兩 甘草三兩 五味子半升 乾薑三兩 細
辛三兩 半夏半兩 杏仁半升去皮先

右の七味を, 水一斗を以て煮て三升を取り,
滲を去り半升を温服, 日に三服せしむ。

水去嘔止 其人形腫者 加杏仁主之。其證應
内麻黃 以其人遂痺故不内之。若逆而内之者必
厥。所以然者 以其人血虚 麻黃發其陽故也。

苓甘五味加薑辛半夏杏仁湯方

茯苓四兩 甘草三兩 五味子半升 乾薑三兩 細
辛三兩 半夏半兩 杏仁半升去皮先

右七味 以水一斗煮取三升 去滲温服半升 日
三服

(前條の方によつて) 水が去り嘔くのが止んだ
が, その病人にむくみのあるのは, 杏仁を加え
て, これを主らせるがよい。この證は麻黃を入
れるのに相當しているが, その病人は前に痺れ
があつたから, 麻黃を入れぬのである。もし誤

있다.

本方は 茯苓, 甘草 乾薑, 五味子, 細辛, 半夏
杏仁の 7가지 藥劑인데 五味子와 半夏 杏仁
은 咳嗽을 治하고, 乾薑 細辛은 一種의 熱藥
으로 血行을 돕고 前記의 藥들과 協力하여
咳嗽治療을 돕는다. 茯苓은 利尿의 效果가 있
고, 浮腫을 除去하며, 甘草는 이상의 諸藥의
作用을 調和하고 茯苓을 도와 動悸. 息切을
治한다.

つてこれを入れると, 必ず厥する。そうなるの
は, その病人は 血氣が 衰えているのに, 麻黃
がその陽を發させるからである48)。

茯苓甘五味加薑辛半夏杏仁湯の處方

茯苓7g 甘草4g 五味子半合 乾薑4g 細辛
4g 半夏半合 杏仁半合皮先を去る

右の七味を, 水一升で三合に煮つめ, 滲を去
り, 一日三回, 半合を温服させる

24. 金匱要略講議日 49)

苓味甘姜辛夏仁湯證:

12-29 「水去り, 嘔止み, 其の人形腫るる者は杏
仁を加えて之を主る。其の證應に麻黃を内るべ
きも, 其の人遂に痺するを以ての故に之を内れ
ず。若し逆して之を内る者は必ず厥す。然る所
以の者は其の人血虚にして麻黃其の陽を 發す
るを以ての故也。」

苓味甘姜辛夏湯を用いれば 嘔は止む。半夏
の作用による。ところが湯中の乾姜及び細辛に
よつて濕の凝結性が和せられて靜性となり, 腫
を招く。杏仁を加えた苓味甘姜辛夏仁湯を用い
て吐(祛痰)によつて邪を排出すればよい。

本證は病位表にあるので麻黃を用いればよい
と思われるが, 麻黃を用いれば液中の濕を浮か
び上らせ, 其の靜性が痺を招き, また天氣を入
れる經穴を塞ぎ, 陽<陰となり厥を招く。故に麻
黃を加えない50)。

47) 丸山清康: 全譯 金匱要略, 東京, 明德出版社,
pp.213~214, 1980.

48) 譯) 前條의 方에 의해 水去하고 嘔吐가 그쳐
서 그 病人에 浮腫이 있으면 杏仁을 加하여
그것을 主하는 것이 좋다. 그 證은 麻黃을 넣
는데 相當하나 그 病人이 前에 痺證이 있었
기 때문에 麻黃을 넣어서는 안된다. 만약 잘
못하여 넣으면 반드시 厥한다. 그것은 그 病
人の 血氣가 衰한데 麻黃이 그 陽을 發散시
키기 때문이다

49) 杉原德行: 金匱要略講議, 東京, 出版科學總合
研究所, pp.355~357, 1981.

50) 譯) 苓味甘姜辛夏湯을 使用하여 嘔吐를 멈춘

處方115 : 苓甘味姜辛夏仁湯

藥	湯	苓甘味薑 半夏湯	苓甘味薑半 夏仁湯	小青龍湯
茯苓	苓	4 兩	4 兩	-
甘草	草	2 兩	3 兩	3 兩
五味子	子	半 升	半 升	半 升
乾薑	薑	2 兩	3 兩	3 兩
細辛	辛	2 兩	3 兩	3 兩
半夏	夏	半 升	半 升	半 升
杏仁	仁	-	半 升	-
麻黃	黃	-	-	3 兩
桂枝	枝	-	-	3 兩
芍藥	藥	-	-	3 兩

「苓甘味姜辛夏仁湯の方は茯苓四兩, 甘草三兩, 五味子半升, 乾姜三兩, 細辛三兩, 半夏半兩, 杏仁半升(皮尖を去る), 右七味, 水一斗を以て煮て三升を取り, 滲を去り, 半升を溫服す。日に三服す。」

本湯は苓甘味姜辛夏湯の甘草, 乾姜及び細辛を苓甘味姜辛湯と同量に増し, 杏仁を加えたものである

本證は濕の靜性が腫を招くものであるから, 濕和の乾姜及び細辛を増量して元の苓甘味姜辛湯と同量とする。腫は杏仁の吐(祛痰)によって邪の排出をはかる。

本湯は最初用いた小青龍湯より桂枝, 芍藥及び麻黃を除き茯苓及び杏仁を加えたものである

것은 半夏의 作用에 의한다. 그러나 湯中에 乾薑과 細辛에 의하여 濕의 凝結性이 和緩되어 靜性의 腫이 招來되었다. 이때 杏仁을 加해서 苓甘味姜辛夏仁湯을 사용해서 吐하게 함으로써 邪를 排出케 한다. 本證은 病位가 表에 있어서 麻黃을 사용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나 麻黃을 사용하면 液中の 濕을 浮上시켜 그 靜性이 庫를 招來하여 마침 天氣가 침입해서 經穴을 막히게하여 厥을 招來한다. 그러기 때문에 麻黃을 加하지 않는다.

。 前述する如く支飲には和兼利尿劑を用い, 發汗劑を用いるのは政治でない。 故に發汗の桂枝を除き, 利尿の茯苓及び祛痰の杏仁を加える。 本證は風の動性による痛がない。 故に風を水に入れて其の動性を和する芍藥を必要としないので之を除く。 麻黃は表在の邪を浮かび上らせるので, 濕の靜性による腫を招く場合には必要と思われるけれども, 桂枝を併せねば發汗によって邪を排出せず, 單に麻黃のみでは邪を浮かび上らせるに止まり, 其の靜性が庫を招き, また經穴を塞いで天氣を入れず, 陽<陰となり厥を招く。いずれも不可である。

本證は茯苓の利尿と杏仁の祛痰によって邪を排出する51)。

25. 仲景方類聚52)

苓甘五味加薑辛半夏杏仁湯 略稱, 苓甘薑味辛夏

51) 譯) 本湯은 苓甘味姜辛夏湯의 甘草와 乾薑 細辛을 苓甘味姜辛湯과 同量으로 늘리고 杏仁을 加하였다. 本證은 濕의 靜性이 浮腫을 일으켰기 때문에 濕을 치는데 乾薑과 細辛을 增量하여 원래의 苓甘味姜辛湯과 同量이 되게 하였고 浮腫은 杏仁으로 祛痰케하여 邪氣를 排出케하였다. 本湯은 最初에 사용된 小青龍湯보다 桂枝 芍藥과 麻黃을 除去하고 茯苓과 杏仁을 加하였다. 前述한 바와 같이 支飲에는 和法과 利尿劑를 사용하는 것이며 發汗劑를 사용하는 것은 政治가 아니다. 故로 發汗하는 桂枝를 除去하고 利尿하는 茯苓과 祛痰하는 杏仁을 加하였다. 本證은 風의 動性에 의한 痛症은 없다. 故로 風을 水에 넣어서 그 動性을 化하는 芍藥을 필요로하지 않아 그것은 除去하였다. 麻黃은 表에 있는 邪氣를 걸어서 올라가게하여 濕의 靜性에 의한 浮腫을 招來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桂枝를 配伍하여 發汗에 의한 邪를 排出시켰다. 단순히 麻黃의 作用은 邪를 浮上케 하는데 그치니 그 靜性이 庫證을 招來하여 經穴을 막히게하여 天氣가 침입하여 厥證을 招來한다. 本證은 茯苓의 利尿와 杏仁의 祛痰에 의해 邪를 排出한다

52) 廉泰煥 : 仲景方類聚, 서울, 癸丑文化社, pp. 281~282, 1974.

仁湯

茯苓四兩 甘草三兩 五味半升(三,0) 乾薑三兩 細辛三兩 半夏半升(五,0) 杏仁半升(三,0)去皮尖右七味,以水一斗,煮取三升,去滯,溫服半升,日三服水去嘔止,其人形腫者,加杏仁主之,其證應內麻黃,以其人遂庫,故不內之,若逆而內之者,必厥,所以然者,以其人血虛,麻黃發其陽故也, (痰飲二三三)

苓甘姜味辛夏仁湯

- 一, 小青龍湯의 適應證으로 虛寒한 者에 쓴다.
- 二, 腎炎, 네프로제, 萎縮腎, 尿毒症, 動脈硬化症, 腦出血後의 半身不遂, 脚氣, 心臟不全, 心臟性喘 息, 營養失調등으로 浮腫하고 脈沈, 手足冷, 小便不利하며 或은 喘咳 或은 腹水를 수반하는 者
- 三, 氣管支炎, 氣管支喘息, 肺氣腫, 百日咳 等으로 咳嗽로 顔面이 붓고, 足冷, 小便不利하며 胃部振 水音이 들리고 기침때문에 嘔吐하는 者

26. 漢方臨床學(辨證施治)53)

老人性慢性氣管支炎에 肺氣腫을 겸한 사람은 苓甘五味子湯을 應用한다.

<處方> 茯苓16g, 甘草12g, 五味子4g, 乾薑, 細辛, 半夏 各 12g, 杏仁8g, 薑3片 을 물에 달여 복용하고 환자가 咳嗽胸滿하고 遍身에 浮腫이 있으며 몸을 기대어 숨쉬며 잘 눕지 못하면 大黃 6g 或은 葶藶子4g을 加한다.

27. 中醫臨床特講54)

寒痰은 陽虛에 의해 생기며 溫陽化痰할 필요가 있다. 肺脾陽虛에는 苓甘薑味辛夏仁湯을, 脾陽虛에는 理中二陳湯을 腎陽虛에는 加減眞武湯을 쓰면 좋다.

苓甘薑味辛夏仁湯

茯苓, 炙甘草, 乾薑, 五味子, 細辛, 半夏, 杏仁.

53) 裴元植 : 漢方臨床學, 서울, 南山堂, pp.75~76, 1981.

28. 正統 金匱要略55)

[二〇四] 水去嘔止, 其人形腫者, 加杏仁主之, 其證應內麻黃, 以其人遂庫, 故不內之. 若逆而內之者, 必厥. 所以然者, 以其人血虛, 麻黃發其陽故也

(注) '遂庫'. 二〇一條의 小青龍湯을 誤用한 다음의 變症 '氣從小腹上衝胸咽 手足庫'(氣는 小腹部 에서 胸部와 咽頭部로 上衝하여 手足이 麻痺된다)의 '庫'를 가리킨다. 庫는 血虛에서 일어나므로 麻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苓甘五味加薑辛半夏杏仁湯方

茯苓(四兩) 甘草(三兩) 五味子(半升) 乾薑(三兩) 細辛(三兩) 半夏(半升) 杏仁(半升,去皮尖)

右七味, 以水一斗, 煮取三升, 去滯, 溫服半升, 日三.

[口語譯] 桂苓五味甘草去桂加乾薑細辛半夏湯을 服用한 다음 水飲은 除去되고 嘔吐가 停止하는데 患者의 身體에 浮腫을 볼 수 있으므로 前記의 處方에 杏仁을 加해서 主治해야 한다. 이 症候는 本來는 麻黃을 加해야 하지만 患者는 手足에 麻痺를 느끼고 있으므로 加해서는 안된다. 만일 禁忌에 違反하여 麻黃을 사용한다면 患者는 반드시 手足이 冷한다. 이것은 患者의 血이 虛하게 되어있는데다가 다시 麻黃으로 發汗시켜 患者에게 陽氣를 잃게 했기 때 문이다.

[苓甘五味加薑辛半夏杏仁湯의 處方]

茯苓(四兩) 甘草(三兩) 五味子(半升) 乾薑(三兩) 細辛(三兩) 半夏(半升) 杏仁(半升,겉질, 胚芽를 除去한다)

右七味를 물一斗로 달여 三升으로 만들고

54) 柳志允 : 中醫臨床特講, 서울, 書苑堂, pp.319~320, 1986.

55) 中國中醫研究院 : 正統金匱要略, 서울, 의학연구원사, 1987.

去滯하여 半升을 따뜻이하여 服用한다. 一日三回 服用한다.

[處方解] 患者는 水邪가 除去되고 嘔吐가 멈추었는데도 身體에 浮腫을 볼 수 있는 것은 氣가 浮上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支飲이 浮腫의 形으로 나타난 症候이다. 앞의 處方에 杏仁을 加해서 肺氣를 열어줌으로써 主治한다. 肺氣가 열리면 水飲이 動하고 浮腫은 自然히 사라진 다.

29. 漢方臨床四十年⁵⁶⁾

肺水腫

本病은 大體로 心臟과 肺臟의 疾患으로 因하여 循環障礙가 올때 肺에 水腫을 招來하게 되는것이다. 發作時에는 苦悶을 가지는 強度의 呼吸困難을 준다. 이때 患者는 橫臥할 수 없고 起坐하여 喘鳴을 준다. 口唇 및 頰部에 '지아노-제'가 著名한 것이다. 大氣管支 및 氣管에 濕性水泡音을 듣는다. 肺臟部에는 肺에 疾患이 없을 時는 打診音에 變化는 없으나 肺의 下部에 濁音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 呼吸音은 強盛音으로되고 著明하게 最少水泡性 操髮音을 듣는다. 咯痰의 量은 많다. 泡沫狀粘液性이지만 肺炎等의 炎症이 있을 時는 淡紅血性으로 된다. 發熱 脈細等證이 오는데 甚하면 胸部의 壓痛과 虛脫을 隨伴하게 된다. 急激하면 數分內에 死亡하는 수 있지만 大개 서서히 오면서 數時間-數日에 水腫이 消失된다.

治法

[茯苓甘草味辛夏仁湯]

稀薄한 咯痰을 頻繁히 咯出하고 脈이 弱하고 숨이 가쁘고 顔面手足에 浮腫이 있고 貧血의 傾向이 있는것에 좋다.

初期 輕症에 쓰인다. 脈은 微弱하고 呼吸困難이 있고 咯痰이 稀薄하고 貧血또는 輕度의 浮腫이 있는 것에 쓰인다.

白茯苓, 半夏, 杏仁 各 五.六三g(一錢半), 五

味子 三.七五g(一錢), 乾姜, 細辛, 甘草 各 二.六g(七分)

30. 國譯 皇漢醫學(第壹卷)57)

苓甘五味薑辛夏仁湯에 관한 師論 註釋

水가 除去되고 氣가 멎고도, 그 사람의 外形이 부어오른 사람은 杏仁을 加하여 다스린다. 그 證은 麻黃을 넣은 反應이며, 그 사람이 마침내 庫하게 된다. 때문에 이것을 넣지 않는다. 만약 逆으로 이것을 넣는다면 반드시 厥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血이 虛하므로 麻黃이 그 陽을 發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다(水去嘔止, 其人形腫者, 加杏仁主之. 其證應納麻黃, 以其人透庫, 故不內之. 若逆而納之, 必厥. 所以然者, 以其人血虛, 麻黃發其陽故也 - 金匱要略)

(註) 丹羽說.

按하건대 '水가 제거되고'란 心下의 水가 제거된다 함이다. 그러므로 嘔가 멎는다. 이것은 半夏의 效驗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內水가 外로 넘쳐서 그 사람의 外形이 부어오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治療는 아직 前法에 따른다. 그리고 表水는 麻黃이 아니고서는 驅除할 수가 없다. 대개 杏仁과 麻黃은 그 성질에 있어서 緊慢의 差異가 있다고 하지만 그 效用은 거의 비슷하다. 그 사람의 血이 虛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것을 代用할 따름인 것이다. '그 사람이 마침내 庫'한다 함은 前段의 手足庫를 말한다. 厥도 또한 前段의 手足厥逆으로서 곧 麻黃을 얻어 그 陽을 亡失하게 하는 것이 더욱 甚하게 되는 것이다. 血이 虛함은 尺脈이 微한 反應인 것이다.

苓甘五味薑辛夏仁湯方

茯苓 五.0

甘草 乾姜 細辛 各三.五

五味子 六.0

半夏 杏仁 各 七.0

56) 朴炳昆 : 漢方臨床四十年, 서울, 大光文化社, p.79, 1979.

57) 朱甲應 : 國譯 皇漢醫學(第壹卷), 서울, 癸丑文化社, PP.261~262, 1974.

煎法 用法은 前과 같음

先輩의 論說

“類聚方廣義”本方條에

痰飲患者가 平素에 咳嗽로 괴로와 하는데는 이 方의 半夏대신 瓜蒌實을 쓰되, 白蜜로 膏藥을 만들어쓰면 큰 效力이 있다.

我說. 嘔症이 없으면 半夏대신 瓜蒌實을 써도 可하지만, 이 症狀이 있을때는 瓜蒌實을 代用해서는 안된다. 나는 本方을 老人의 慢性氣管支炎(특히 肺氣腫에 兼發된 것)에 써서 偉效를 본일이 있다.

1 東洞翁은 ‘苓甘薑味辛夏仁湯은 苓甘薑味辛夏湯證으로서 微腫이 있는 사람을 다스린다’ 하였다.

31. 圖說韓方診療要方58)

苓甘薑味辛夏仁湯(金匱要略)

<處方>

茯苓8.0 半夏10.0 杏仁 甘草 乾薑 細辛 五味子 各6.0

<目標>

體內에 冷과 水가 있어서 慢性化하여 體力도 弱해지고 熱은 없다. 小青龍湯證과 같이 喘鳴, 咳嗽 水腫에 使用되지마는 本方은 貧血의 傾向이 있고 脈은 沈하며 弱하고, 冷症으로서 手足이 冷하고, 發熱, 惡寒, 頭痛, 身體疼痛 등의 表熱症狀은 이미 없으며 慢性化하여 虛狀으로 移行하고 水毒의 症狀으로서의 胃內停水, 心悸亢進, 喘咳, 利尿減少, 浮腫 등이 있는 者를 目標로 한다. 小青龍湯에는 表證이 있으나 本方은 그 裏에 該當하는 處方이다.

構成 藥物의 大部分이 溫性的 驅水劑로서 內의 寒과 水를 따뜻하게하여 排泄을 促進하는 것이다.

<應用>

1. 小青龍湯의 適應證으로 虛寒한 者
2. 急慢性氣管支炎, 氣管支喘息, 肺氣腫, 百日咳 等으로 咳嗽로 因하여 顔面이 붓고 足冷, 小便不利, 胃部振水音이 있고 기침 때 嘔吐하는 者
3. 腎炎, 네프로제, 萎縮腎, 尿毒症, 動脈硬化症, 腦出血後의 半身不遂, 脚氣, 心臟不全, 心臟性 喘息, 營養失調 等으로 浮腫하고 脈沈, 手足冷, 小便不利하며, 혹은 喘咳, 或은 腹水を 隨伴하는 者.

<鑑別>

小青龍湯 (喘咳, 表熱症狀이 있고, 浮腫, 涎沫을 吐한다. 脈浮弱)

麻杏甘石湯 (喘, 表熱이 없고, 喘輕度)

<典據>

● 水去嘔止 其人形腫者 加杏仁主之 其證應內麻黃以其人遂庫故不內之 若逆而內之者 必厥所以 然者以其人血虛麻黃發其陽故也

<參考>

- (1) 이 條文은 單獨으로는 그 意味가 매우 不鮮明하다. 小青龍湯에서 시작하여 苓桂五味甘草湯, 苓甘五味薑辛湯, 여기서 다시 苓甘薑味辛夏湯에서 本方에까지 證의 移動傳變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苓甘薑味辛夏湯은 心下의 支飲이 上衝하여 冒와 嘔를 惹起한다. 水去嘔止는 이 方에 의하여 或은 自然히 心下의 支飲(胃內停水) 이 사라지고 嘔가 멈추었는데 支飲이 體表에 溢하여 浮腫狀을 가져온 것을 意味하며, 이때에는 杏仁을 加한 本方의 證이라고 하는 것이다.(矢數道明)
- (2) 本方이 直接指示는 形腫뿐이다. 處方의 構成上으로 보면 裏水가 있고 表를 向하여 溢飲하는 狀態이다. 表水가 있으므로 麻黃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血虛, 卽 庫하여 있으므로 陽, 卽 表를 發하는 麻黃을 使用할 수가 없다. 만약 反對로 麻黃을 사용하면 血虛에서 厥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麻黃代身에 杏仁을 使用하는 것이다.

58) 李載熙 : 圖說韓方診療要方, 全南光州, 醫學研究社, pp.515~517. 1983.

本方과 小青龍湯을 比較하면 細辛, 乾薑, 甘草, 五味子, 半夏는 共通하며 小青龍湯의 麻黃代身에 杏仁이 있고 小青龍湯에는 桂枝와 芍藥이 들어있다. 桂枝는 麻黃에 붙는다고 보면 小青龍湯證의 溢飲으로서 表가 虛한 것이 本方이라고 解釋된다. 이 點에 着眼하여 浮腫이나 腹水 및 그밖의 溢飲에 쓰이는 境遇가 있다.(龍野一雄)

(3) 漢方에서 水毒이라고 하는 것, 즉 水分代謝機能이 障害되었을때에 體內에 停留한 水分은 體溫調節의 變調을 가져와서 寒冷性을 띠고 痰飲의 病이나 裏水의 病이 된다. 이 裏水는 어떠한 刺戟에 의하여 上行하여 胸部에 病狀을 일으키든지 體表로 넘쳐서 浮腫狀이 된다. 苓甘薑味辛夏仁湯의 本據는 實로 이 內部에 偏한 寒性的 裏水이며, 이것이 現象으로서 外部에 나타날 境遇 大別하여 다음의 네가지의 適應證群으로서 나타난다. 그 主證, 客證은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 樣相을 나타낸다.

1. A型適應證候群은 體質이 虛弱한 者이며 貧血 冷症이며 咳嗽呼吸困難을 일으키고 浮腫狀을 띠는 일이 많으며 浮腫이 없을때도 있지만은 稀薄한 痰을 咯出하고 小便不利 혹은 自利한다. 氣管支喘息이나 慢性氣管支炎에서 많이 나타난다.
2. B型은 그다지 虛弱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冷症이며 甚한 기침이있고, 그 終末에는 嘔氣를 發하고 咯痰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粘稠한 痰이 나오고 顔面에는 浮腫狀을 띠는 일이 많은데, 그렇지 않을때도 있다. 慢性氣管支炎에 많이 나타난다.
3. C型은 浮腫이나 咯痰은 적지만은 呼吸困難이 甚하고 喘鳴이 있고 재체기, 물은 鼻汁過多, 冷한 胃內停水 등이 있는데 氣管支喘息이나 肺氣腫에 많이 나타난다.

4. D型은 無熱性的의 腹水 或은 浮腫이며, 때로는 呼吸困難, 喘咳를 併發하거나 水腫腹水, 腹膜炎으로 나타난다 (矢數道明著 '漢方百話').

(4) 本方과 類似方과의 比較를 表示하면 小青龍湯 (內飲, 外邪, 時氣에 觸하여 動하며 咳喘한다.)

苓桂味甘湯 (內飲, 下焦의 水 逆 하며 鬱冒한다)

苓甘薑味辛湯 (內飲이 動하고 咳嗽한다)

苓甘薑味辛夏湯 (內飲, 中焦에 留飲이 있고 嘔逆한다)

苓甘薑味辛夏仁湯 (內飲, 水氣 外에 넘쳐서 浮腫이 된다)

苓甘薑味辛夏仁黃湯 (內飲, 水氣 外에 넘치고 胃熱하고 面翕한다) ('漢方百話')

(5) 苓桂五味甘草湯, 苓甘薑味辛湯, 苓甘薑味辛夏湯, 苓甘薑味辛夏仁湯, 苓甘薑味辛夏仁黃湯은 所謂 水毒에서 發하는 咳嗽, 吃逆, 眩暈, 心悸亢進, 浮腫, 肉瞶, 筋惕 等の 症狀을 治한다. 그 作用은 어느것이나 매우 類似하며 發熱, 惡寒 等の 表證이 없고, 오히려 虛證의 傾向이다. 老人, 虛弱者 等に 應用할 機會가 많다('漢方治療提要')

32. 韓方處方解說⁵⁹⁾

苓甘姜味辛夏仁湯(金匱要略)

茯苓 半夏 杏仁 各 四.0 甘草 乾姜 細辛 五味子 各 二.0

[應用] 體內에 冷과 水가 있어서 慢性化하여 體力도 弱해지고 熱은 없으며, 喘鳴, 咳嗽, 水腫 等を 發하는 者에 應用한다.

本方은 主로서 急性慢性氣管支炎, 氣管支喘息, 肺氣腫 等に 쓰이고 또 浮腫, 腹水, 네후로

59) 矢數道明 : 韓方處方解說, 大邱, pp.624~626, 1986.

제의 一應, 慢性腎炎, 萎縮腎, 腹膜炎, 滲出性肋膜炎, 肺水腫, 心臟性喘息, 百日咳, 脚氣等に應用된다.

[目標] 小青龍湯證과 같이 喘鳴, 咳嗽 水腫에 使用되지 않는 本方은 貧血의 傾向이 있고 脈은 沈하며 弱하고 冷症으로서 手足이 冷하고 發熱, 惡寒, 頭痛, 身體疼痛等の 表熱症狀은 이미 없으며, 慢性化하여 虛證으로 移行하고 水毒의 症狀으로서의 胃內停水, 心悸亢進, 喘咳, 利尿減少, 浮腫 등이 있는 者를 目標로 한다. 小青龍湯에는 表證이 있으나 本方은 그 裏의 處方이다.

[方解] 構成의 藥物은 大部分이 溫性的 驅水劑이다. 卽 內的 寒과 水를 따뜻하게하여 排泄을 促進하는 것이다.

茯苓은 利水의 藥이며, 胃內的 停水과 宿水를 去하고 小便不利와 心悸를 治한다. 半夏은 이에 相乘한다. 杏仁은 胸間的 停水를 去하고 喘을 治하며, 呼吸困難과 浮腫을 治하는 作用이 있다. 茯苓과 半夏에 相乘하여 水를 利하는 것이다. 五味子는 收斂性鎮咳藥이며, 咳逆을 主治한다. 또 冒함을 治하고 半夏, 杏仁의 鎮咳에 相乘한다. 細辛은 冷한 宿飲停水를 主治하는 것으로서 心下의 水氣 때문에 咳嗽을 일으키는 것을 막는다. 一方으로는 五味子, 半夏와 上昇하여 咳嗽을 鎮靜시킨다. 또 乾姜과 힘을 合하여 胃內的 停水를 去하고 四肢의 厥冷을 治한다.

乾姜도 또 溫藥이며 水毒이 上方으로 迫到하는 것을 治하고 結滯하고 있는 水를 돌게한다. 甘草는 諸藥을 調和시키는 것이다. 茯苓, 甘草外에는 모두 따뜻하게 하는 作用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며, 冷으로 困하여 일어난 本方證에 좋다.

[變方] 本方은 金匱痰飲門의 苓桂味甘湯, 苓甘五味姜辛湯, 苓甘姜味辛夏湯, 苓甘姜味半夏仁黃湯, 小青龍湯等과 一連의 類方이며 病狀의 推移에 따라서 去加된 것이다.

[主治] 金匱要略(痰飲咳嗽門)에는 그 推移하

는 類方을 順에 따라서 揭記하고 있다.

苓桂味甘湯條에는 '咳逆倚息 臥하지 못한다. 小青龍湯 이것을 主한다. 靑龍湯 이미 下하여 多唾口燥, 寸脈沈, 尺脈微, 手足厥冷하여 氣少腹으로부터 胸膈에 上衝하고 手足厥 그 而 翁然(붉게 熱氣를 띤다)히 醉狀과 같고 따라서 또 陰股에 下流하여 小便難, 때로는 또 冒(머리에 무엇을 덮어쓴 느낌, 또 意識이 朦朧한 상태, 保然自失의 狀態)하는 者, 苓桂味甘湯을 주어서 그 氣衝을 治한다.' (茯苓 六.0 桂枝 四.0 五味子 三.0 甘草二.0)

苓甘五味姜辛湯의 條에는 '衝氣 卽 低하고 그리고 도리어 다시 기침하며, 胸滿하는 者는 苓桂味甘湯을 쓰며 桂를 去하고 乾姜, 細辛을 加하여서 그 咳滿을 낮게한다.'

(前方에는 桂枝를 去하고 細辛二.0 乾姜二.0을 加한다.)

苓甘五味姜辛夏湯의 條에는 '咳滿 卽 그치고 그리고 다시 또 渴하며, 衝氣 또 發하는 者는 細辛 乾姜 熱藥인 까닭이다. 이것을 服하면 마침내 바로 渴할 것이다. 그리고 渴이 도리어 그치는 者는 支飲이라고 하는 것이다. 支飲의 者는 法 반드시 冒할 것이다. 冒하는 者는 嘔한다. 嘔한는 者는 또 半夏를 넣어서 그 水를 去한다.'

(前方에 半夏 六.0을 加한다.)

苓甘姜味辛夏仁湯의 條에는 '水去하고 嘔그치어 그사람 이내 붓(腫)는자는 加杏仁 이것을 主한다. 그 證은 麻黃을 넣은데에 應한다. 그 사람 마침내 庫하므로써 이것을 넣지 않는다.'

苓甘姜味辛夏仁湯條에는 '萬若面熱 醉한 것과 같음은 이것 胃熱이 上衝하여 그 面을 熏한다고 한다. 加大黃으로써 이것을 利한다.'等이라고 있다.

(前方에 大黃 一.0~二.0을 加한다.)

[鑑別]

○ 小青龍湯(喘咳, 表熱症狀이 있고 浮腫, 涎沫을 吐한다. 脈浮弱) ○ 麻杏甘湯(喘, 表熱없고 喘輕度)

IV. 考察 및 總括

茯苓甘草五味姜辛湯方은 東漢의 張機가 撰한 <<金匱要略方論>>中 ‘痰飲咳嗽病脈證病治第十二 論一首 脈證二十一條 方十八首’中 第十七首로 記錄되어 있다. 處方名⁶⁰⁾은 文獻에 따라 다소 달리 表記되고 있으나 그 本文內容은 같고, 構成藥物 모두 同一하나, 用量⁶¹⁾은 大部分의 文獻이 同一하지만 現代의 文獻에서 약간의 差異를 보이고 있다.

矢數道明에 의하면 本條는 單獨으로는 그 意味가 매우 不鮮明하다고 하였다. 小青龍湯에서 시작하여 苓桂五味甘草湯, 苓甘五味薑辛湯, 여기서 다시 苓甘薑味辛夏湯에서 本方에까지 證의 移動傳變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苓甘薑味辛夏湯은 心下의 支飲이 上衝하여 冒와 嘔를 惹起한다. 水去嘔止는 이 方에 의하여 或은 自然히 心下의 支飲(胃內停水) 이 사라지고 嘔가 멈추었는데 支飲이 體表에 溢하여 浮腫狀을 가져온 것을 意味하며, 이때에는 杏仁을 加하는 것이 本方의 證⁶²⁾이라고 하였다.

本方이 直接指示는 形腫뿐으로 處方의 構成上으로 보면 裏水가 있고 表를 向하여 溢飲하는 狀態여서 表水가 있으므로 麻黃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血虛, 卽 庫하여 있으므로 陽, 卽 表를 發하는 麻黃을 使用할 수가 없으니 만약 反對로 麻黃을 사용하면 血虛에서 厥을 일으키게 되어 麻黃代身에 杏仁을 使用하는 것⁶³⁾이라고 하였다.

李는 本條는 두문단으로 나누어 理解해야 하는데, “水去嘔止……加杏仁主之”가 第一段으로 肺衛氣가 滯하여 浮腫으로 變한 證治을 論述하였다. 苓甘五味姜辛半夏湯을 服用後 中焦脾

胃의 氣가 漸次 回復한 故로 “水去嘔止”하게 되었는데 다시 “그 사람이 浮腫이 생기는 것”을 肺는 水의 上源으로서 肺氣가 通利하여서 氣가 내려가면 水도 따라가니 寒飲이 흩어지면 形腫은 저절로 消滅된다. 苓甘五味姜辛半夏杏仁湯은 溫陽散寒하며 利肺滌陰하는 效果가 있다. 비록 溫하나 發散하지 못하면 利氣로써 消腫하게 된다. “其證應內麻黃……麻黃發其陽故也.”이 第二段으로 麻黃을 써서는 안된다는 것과 그 理由를 說明하고 있다. 이 文章은 進一步하여 血虛患者에게 麻黃을 誤用한 後에 일어나는 副作用을 說明하는 것이다. 麻黃은 發汗峻藥이다. 汗은 心液이며 血이 化한 것이니 血과 汗은 同源이니 發汗하면 陽氣(血中の 陽인 營氣와 衛外의 陽인 衛氣를 包含)를 散泄할 뿐만아니라 津液과 陰血도 損傷하게 된다. 血虛하면 氣가 附着할 수 없어서 陰陽氣血이 俱虛하여 四肢厥冷 肢體麻木症狀이 나타나므로 血虛患者가 形腫證이 있으면 반드시 麻黃으로 發汗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⁶⁴⁾고 하였다.

- 61) 茯苓四兩 甘草三兩 五味半升 乾薑三兩 細辛三兩 半夏半升 杏仁半升(去尖)
茯苓 半夏 杏仁 各4. 五味子3. 甘草 乾薑 細辛 各2
茯苓8.0 半夏10.0 杏仁 甘草 乾薑 細辛 五味子 各6.0
茯苓 半夏 杏仁 各 四.0 甘草 乾薑 細辛 五味子 各 二.0
茯苓三錢 甘草二錢 半夏錢半 五味子五分 乾薑三錢 細辛五分 杏仁三錢
茯苓16g 甘草12g 五味子4g 乾薑 細辛 半夏 各12g 杏仁8g 薑3片
茯苓5.0 甘草 乾薑 細辛 各三五 五味子 六.0 半夏 杏仁 各 七.0
白茯苓 半夏 杏仁 各一錢半 五味子一錢 乾薑 細辛 甘草 各七分
茯苓七g 甘草四g 五味子半合 乾薑四g 細辛四g 半夏半合 杏仁半合

60) 茯苓甘草五味姜辛湯方, 苓甘薑味辛夏仁湯, 苓甘五味加薑辛半夏杏仁湯, 苓甘五味子湯, 苓甘五味薑辛夏仁湯, 茯苓甘草五加味姜辛半夏杏仁湯, 苓甘五味薑辛半夏杏仁湯, 茯苓甘五味加薑辛半夏杏仁湯, 茯苓甘草五味姜辛湯

62) 李載熙 : 圖說韓方診療要方, 全南光州, 醫學硏究社, p.516, 1983.
63) 李載熙 : 圖說韓方診療要方, 全南光州, 醫學硏究社, p.516, 1983.

丹은 이 處方은 痰飲咳嗽의 政治方으로서 비교적 上方보다 더욱 進一步한 것이라고 보았으며 金匱要略의 小青龍湯條에서 이條까지 五節이 連續하여 이어져있다고 설명하였으며, 대개 外實한 경우 또는 內實한 경우도 역시 麻黃을 사용할 수 있으나, 外實하며 內眞虛한 경우에는 결코 麻黃을 사용하지 못한다고하여 그 禁忌의 경우를 설명하였으며, 이래서 本方에 麻黃의 溫散한 性質을 사용치 못하고 杏仁의 苦欽한 性質을 利用한다⁶⁵)고 하였다.

李는 服藥後에 裏氣가 轉和하여 水邪와 嘔吐證狀은 除去되었으나, 表氣가 宣布되지않아 形腫한 症狀이 생긴다고 그 原因을 보았으며 形腫의 治法은 前方에 杏仁을 加하여 肺氣를 宣利하면 氣化하여 飲이 除去되고 形腫역시 따라서 減하게된다⁶⁶)고 論述하였다.

高는 水去嘔止하나 形腫한 者는 氣가 虛하여 分肉間을 運行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說明하였으며 麻黃은 泄氣하기 때문에 分肉間의 氣가 더욱 虛薄해지므로 利肺하는 杏仁을 加하여한다⁶⁷)고 하여 虛氣의 位置를 分肉間이라고 提示하였다.

楊는 水가 胃에 있으면 冒이며 嘔가 된다. 水가 肺에 있으면 喘이 되고 腫이 된다. 芩甘五味姜辛夏湯服用後 胃中の 水飲이 溫和하여 嘔吐가 그친 것은 裏氣가 이미 和한 證候이다. 前第二條에서는 支飲을 論하고 있으며, 그 “其形如腫”과 本條의 “其人形腫”은 비슷하나 같지않다. 前者인 “形如腫”은 支飲의 外候를 論하는 것이며, 本條의 “形腫”은 肺衛氣가 鬱滯하고 不通하여 飲邪가 未盡하고 飲이 肺에 逼迫하는 所致이다⁶⁸)라고하여 支飲과 形腫의 差異를 說明하였으며 魏의 說明과 多少 差異를 보였다.

李는 本方證은 支飲과 咳嗽 冒證 嘔吐證에 芩甘五味姜辛半夏湯後에 水飲이 減少하고 胃氣和降하였으나 肺에 水飲이 未盡하여 肺氣의

宣降作用의 失調로 水飲이 肌表에 外溢하여 形腫이 發하게 된 것으로 所謂 “其人形腫者”라고 하는 것이다라고하여 形腫의 發生機轉을 說明하였으며, 杏仁一味를 加하여 肺氣를 開降하여 飲邪를 흠뜨리고 水를 下하고 溫肺化飲하고 宣疏肺氣, 水道通調하게 되면 그 浮腫이 저절로 消失된다⁶⁹)고 治法을 提示하였다.

丹은 血虛한 者는 陽氣가 의지할 것이 없다. 陽氣를 發하면 厥脫하기가 쉬우니 麻黃을 쓰지 못하고 마땅히 陽을 公고히하고 液을 救하는 藥을 써야한다⁷⁰)고 하였다.

陳은 咳嗽가 줄고 嘔吐가 그치지만 浮腫이 새로 생기고, 얼굴이 붓는 것 등 形腫의 原因을 肺氣가 癡取된 때문이라고 보았으며⁷¹), 何는 水去嘔止하였으나 病人의 身形에 浮腫이 생긴 變證의 根據를 肺가 壅塞하여 不通한 所致라고 보았으며, 비록 杏仁의 力量이 輕微하나 上湯에 杏仁을 加하여 肺의 壅塞을 散하는 것이 病證에 合當한 것이다⁷²)라고 하였다.

杉은 湯中에 乾薑과 細辛에 의하여 濕의 凝結性이 和解되어 靜性의 形腫을 招來되었으리 때 杏仁을 加해서 芩味甘姜辛夏仁湯을 사용해 吐(祛痰)하게 함으로써 邪를 排出케 한다.

65) 冉小峰 等: 歷代名醫良方注釋,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p.316, 1983.

66) 李培生: 金匱要略講議(東洋醫學叢書), 서울, 一中社, p.147, 1990.

67) 李培生: 金匱要略講議(東洋醫學叢書), 서울, 一中社, p.147, 1990.

68) 楊緒性: 金匱要略,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p.358, 1994.

69) 中醫大辭典編纂委員會 編: 中醫大辭典(方劑分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297, 1983.

70) 日本·丹波元堅 編著: 金匱玉函要略述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60, 1983.

71) 陳修園 著(清): 金匱方歌括,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75, 1980.

72) 何任 編著: 金匱要略通俗講話,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74, 1979.

64)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374~375, 1993.

本證은 病位가 表에 있어서 麻黃을 사용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나 麻黃을 사용하면 液中の 濕을 浮上시키며 그 靜性이 庫를 招來하여 마침 天氣가 침입해 經穴을 막히게하여 厥을 招來하기 때문에 麻黃을 加하지 않는다⁷³⁾고하여 形腫의 原因을 濕의 凝結性和解로 보았으며 治法을 吐法(祛痰)으로 說明하였으며 厥의 原因을 表濕한데 天氣의 侵入으로 說明하였다.

謝는 形氣는 肺와 관련되니 肺는 皮毛를 主하며 治節之官이라 몸이 붓는다는 것은 肺氣가 不行하여 멎쳐서 通하지 않는것이라고하여 肺氣不行不通을 形腫의 原因으로 보았으며 杏仁의 苦味로써 泄하고 辛味로써 開하는 作用을 取하여 肺氣를 內로 通하게하고 外로는 水氣를 散한다⁷⁴⁾고 하였다.

徐는 形腫이란 것은 몸이 부었다는 것이다. 肺氣가 이미 虛하여 遍布하는 作用을 할 수 없어서 붓게 되는 것이니 杏仁으로써 理氣시켜서 氣滯하지 않으면 浮腫은 저절로 消失된다⁷⁵⁾고하여 浮腫의 原因을 肺氣虛에 따른 遍布作用不能으로 인한 氣滯로 認識하였다.

魏는 形腫한 것은 氣浮한 것이니 支飲中에 마치 부은듯한 證狀이다. 陽은 外部에서 浮弱한 것이며 陰은 裏에서 盛하여 凝한 것이니 前方에 杏仁을 加하여 降氣함으로써 主治하는 것이니 氣降하면 飲이 스스로 行하여 浮腫이 스스로 消滅한다고 治療原則을 說明하였고, 形腫의 症狀은 四肢의 溢飲과 비슷하나 四肢의 溢飲은 아니고 支飲인 것이다. 溢飲의 水는 皮膚에 있는 것이고, 浮腫같은 支飲의 水는 分肉의 가운데 經絡의 內部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皮膚의 水는 發汗함이 可하나 經絡分肉의 水는 發汗함이 不可하다고 說明하였다. 그 사람이 血虛한 것은 經絡分肉間이 空虛한 것이다. 비록 血虛하여 竅가 氣弱하고, 氣弱하면 陽浮하게 되니 麻黃이 陽氣를 發越하게되어 內部를 堅固하게 지키지 못하니 이것은 杏仁

을 써서 內에서 降氣行水케 하고 溫中理脾케 하니 杏仁은 支飲의 水를 다스리고, 麻黃은 溢飲을 治한다⁷⁶⁾고 하였다.

黃元卿은 浮腫이 생긴 者는 衛氣가 鬱滯된 것이니 杏仁을 加하여 肺壅을 풀어주고 衛鬱을 泄한다⁷⁷⁾고 하였다.

中國中醫研究院中醫研究生班에서는 그 形體에 浮腫이 있는것은 心下의 飲이 비록 去하였으나 但 飲氣가 外溢하여 肺衛가 壅滯하여 宣通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본래 마땅히 麻黃으로 發汗하여 浮腫을 없애나 그 사람이 平素 稟賦가 不足한데 또 發汗시키면 陰陽이 모두 虛해지고 寸脈이 沈하고 尺脈이 微해진다. 그래서 仲景은 일찍이 尺脈이 微하면 發汗하지 말하였으니 麻黃을 다시 써서 그 陰을 거듭 傷하고 그 陽이 虛해져서는 안되니 但只 杏仁을 써서 肺壅을 이롭게하고 衛鬱을 泄하여 肺衛가 通하면 水腫이 스스로 消滅된다⁷⁸⁾라고 金匱要略注評에서 말하였다.

本方의 方解를 보면 大·失·清 등은 本方은 茯苓·甘草·乾薑·五味子·細辛·半夏·杏仁의 7가지 藥劑인데 五味子和 半夏·杏仁은 咳嗽을 治하고, 乾薑·細辛은 一種의 熱藥으로 血行을 돕고 前記의 藥들과 協力하여 咳嗽治療를 돕는다. 茯苓은 利尿의 效果가 있고, 浮腫을 除去하며, 甘草은 이상의 諸藥의 作用을 調和하고 茯苓을 도와 動悸·息切을 治한다라고 하였으며⁷⁹⁾, 失에 의하면 構成 藥物 대

73) 杉原德行 : 金匱要略講義,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pp.356~357, 1981.

74) 謝觀 :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高文社, p.488, 1975.

75) 李文瑞 主編 : 金匱要略湯證論治,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p.449, 1993.

76) 李文瑞 主編 : 金匱要略湯證論治,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p.449, 1993.

77) 李克光 主編 : 金匱要略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375, 1993.

78) 李克光 主編 : 金匱要略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375, 1993.

79) 大塚敬節·矢數道明·清水藤太郎 : 漢方診療

부분이 溫性的 逐水劑로서 內的 寒과 水를 따 뜻하게하여 排泄을 促進하는 것이다. 茯苓은 利尿의 藥이며 胃內的 停水과 宿水를 去하고 小便不利와 心悸를 治한다. 半夏는 이에 相乘한다. 杏仁은 胸間的 停水를 去하고 喘을 治하며 呼吸困難과 浮腫을 治하는 作用이 있다. 茯苓과 半夏에 相乘하여 水를 利하는 것이다. 五味子是 收斂性 鎮咳藥이며 咳逆을 主治한다. 또 冒함을 治하고 半夏 杏仁의 鎮咳에 相乘한다. 細辛은 冷한 宿飲停水를 主治하는 것으로서 心下의 水氣 때문에 咳嗽을 일으키는 것을 막는다. 한편으로는 五味子 半夏와 上昇하여 咳嗽을 鎮靜시킨다. 또 乾薑과 힘을 合하여 胃內的 停水를 去하고 四肢의 厥冷을 治한다. 乾薑도 또 溫藥이며 水毒이 上方으로 迫到하는 것을 治하고 結滯하고 있는 水를 돌게한다. 甘草는 諸藥을 調和시키는 것이다. 茯苓 甘草外에는 모두 따 뜻하게 하는 作用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며 冷으로 因하여 일어난 本方證에 좋다⁸⁰⁾고 하였다.

杉은 本湯은 苓甘味姜辛夏湯의 甘草와 乾薑 · 細辛을 苓甘味姜辛湯과 同量으로 늘리고 杏仁을 加하였다. 本證은 濕의 靜性이 浮腫을 일으켰기 때문에 濕을 치는데 乾薑과 細辛을 增量하여 원래의 苓甘味姜辛湯과 同量이 되게 하였고 浮腫은 杏仁으로 祛痰케하여 邪氣를 排出케하였다. 本湯은 最初에 사용된 小青龍湯보다 桂枝 芍藥과 麻黃을 除去하고 茯苓과 杏仁을 加하였다. 前述한 바와 같이 支飲에는 和法과 利尿劑를 사용하는 것이며 發汗劑를 사용하는 것은 政治가 아니다. 故로 發汗하는 桂枝를 除去하고 利尿하는 茯苓과 祛痰하는 杏仁을 加하여 邪를 排出한다⁸¹⁾라고 하였다.

本方의 現代的 應用은 李와 廉에 의하면 小青龍湯의 適應證으로 虛寒한 者, 急性性氣管支炎 · 氣管支喘息 · 肺氣腫 · 百日咳 등으로 咳嗽로 因하여 顔面이 붓고, 足冷 · 小便不利 · 胃部振水音이 있고 기침 때문에 嘔吐하는 者,

腎炎 · 네프로제 · 萎縮腎 · 尿毒症 · 動脈硬化症 · 腦出血後의 半身不遂 · 脚氣 · 心臟不全 · 心臟性 喘息 · 營養失調 등으로 浮腫하고 脈沈 · 手足冷 · 小便不利하며, 혹은 喘咳 或은 腹水를 隨伴하는 者라고 하였고⁸²⁾⁸³⁾, 失은 本方은 主로서 急性慢性氣管支炎 · 氣管支喘息 · 肺氣腫 等に 쓰이고 또 浮腫 · 腹水 · 네후로제의 一應 · 慢性腎炎 · 萎縮腎 · 腹膜炎 · 滲出性肋膜炎 · 肺水腫 · 心臟性喘息 · 百日咳 · 脚氣等에 應用된다고 하였고⁸⁴⁾, 楊은 老年性慢性氣管支炎 · 肺氣腫 · 輕度の 肺水腫 · 身腫 者라고 하였고⁸⁵⁾, 李는 慢性氣管支炎 · 肺氣腫 · 肺心病 等 者에 常用할 수있다고 하였고⁸⁶⁾, 楊은 慢性濕性氣管支喘息⁸⁷⁾에 朴은 肺水腫⁸⁸⁾에 應用하였다.

이상과 같이 <<金匱要略>>에는 小青龍湯으로 下한후 氣衝하는 者는 苓桂味甘湯(茯苓六.0 桂枝四.0 五味子 三.0 甘草二.0)으로 治하고, 다시 咳滿하는 者는 苓甘五味薑辛湯(前方에 桂枝를 去하고 細辛二.0 乾薑二.0을 加한다.)으로 治하며, 咳滿이 그치나 다시 氣衝 支飲 冒 嘔하는 者는 苓甘五味薑辛夏湯(前方에 半夏 六.0을 加한다.)으로 治하고, 水去嘔止하

- 80) 矢數道明 : 韓方處方解說, 大邱, pp.624~625, 1986.
- 81) 杉原德行 : 金匱要略講議,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pp.356~357, 1981.
- 82) 廉泰煥 : 仲景方類聚, 서울, 癸丑文化社, pp. 281~282, 1974.
- 83) 李載熙 : 圖說韓方診療要方, 全南光州, 醫學研究社, p.516. 1983.
- 84) 矢數道明 : 韓方處方解說, 大邱, p.624, 1986.
- 85) 楊緒性 : 金匱要略,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p. 359, 1994.
- 86) 李文瑞 主編 : 金匱要略湯證論治,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p.449, 1993.
- 87) 楊醫俠 : 臨床各科綜合診療學, 文光圖書公司, p.75, 1975.
- 88) 朴炳昆 : 漢方臨床四十年, 서울, 大光文化社, p.79, 1979.

醫典, 東京, 南山堂, p.428, 1969.

나 몸이 붓는 者는 加 杏仁하여 苓甘薑味辛夏仁湯으로 治하는 것⁸⁹⁾이며, “其人形腫”의 理由를 徐彬과 魏念庭은 모두 虛가 根本이라고 認定하고 있으며 徐氏는 氣滯를 強調하며 魏氏는 陰이 裏에서 凝滯함이라 認定하였다. 黃元御은 肺衛氣壅으로 認定하고 있다. 杏仁과 麻黃모두 消腫의 要藥이나 體內에 冷과 水가 있어서 慢性化하여 體力이 弱해지나 熱은 없는 경우, 麻黃에 의한 陽氣의 損傷을 念慮하여 藥力은 弱하나 宣肺祛痰, 化飲降逆의 作用이 있는 杏仁을 加한 것이다. 現代의으로는 各種 慢性肺疾患에 應用할 수 있으나 특히 水腫證狀에 더욱 活用할 價値가 있다고 하겠다.

硬化症·腦出血後의 半身不遂·脚氣·心臟不全·心臟性 喘息·營養失調 등으로 浮腫하고, 脈沈·手足冷·小便不利하며 或은 喘咳 或은 腹水を 隨伴하는 者이다.

V. 結 論

茯苓甘草五味薑辛湯方을 文獻的 考察을 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茯苓甘草五味薑辛湯方은 茯苓·甘草·五味子·乾姜·細辛·半夏·杏仁 等 7味로 構成되어있다.
2. 茯苓甘草五味薑辛湯方의 效能은 溫中化濕·宣肺祛痰·溫肺散寒·化飲降逆·宣疏肺氣다.
3. 茯苓甘草五味薑辛湯方의 主治證은 肺寒支飲·痰多清稀·胸悶嘔逆·心悸頭眩·頭面虛浮·其形如腫·舌苔白膩·脈沈弦滑·尺部無力證이다.
4. 茯苓甘草五味薑辛湯方의 適應證은 急慢性氣管支炎·氣管支喘息·肺氣腫·百日咳 等으로 咳嗽로 因한 顔面浮腫, 足冷·小便不利·胃部振水音이 있고 기침 때문에 嘔吐하는 者, 腎炎·네프로제·萎縮腎·尿毒症·動脈

89) 矢數道明 : 韓方處方解說, 大邱, pp.625~626, 1986.

參考文獻

1. 江克明 包明蕙 編著：簡明方劑辭典，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p.642, 1989.
2. 大塚敬節·矢數道明·清水藤太郎：漢方診療醫典，東京，南山堂，pp.81,427~428,537, 1969.
3. 朴炳昆：漢方臨床四十年，서울，大光文化社，p.79, 1979.
4. 裴元植：漢方臨床學，서울，南山堂，pp.75~76, 1981.
5. 謝觀：東洋醫學大辭典，서울，高文社，p.488, 1975.
6. 杉原德行：金匱要略講義，東京，出版科學總合研究所，pp.355~357, 1981.
7. 徐大椿 撰(清)：蘭臺軌範(中國醫學大系)，여강출판사，p.785-442
8. 矢數道明：韓方處方解說，大邱，pp.624~626, 1986.
9. 楊緒性：金匱要略，서울，아울로스출판사，pp.358~359, 1994.
10. 楊醫俠：臨床各科綜合診療學，文光圖書公司，pp.74~75, 1975.
11. 冉小峰 等：歷代名醫良方注釋，北京，科學技術文獻出版社，pp.316~317, 1983.
12. 廉泰煥：仲景方類聚，서울，癸丑文化社，pp.281~282, 1974.
13. 吳謙 外：醫宗金鑑，서울，大成文化社，p.590, 1983.
14. 吳克潛：古今醫方集成(全四冊)，上海，上海大眾書局，p.1119, 1980.
15. 王云凱：中國名醫著名方，河北，河北科學技術出版社，p.793, 1993.
16. 柳志允：中醫臨床特講，서울，書苑堂，pp.319~320, 1986.
17. 李克光 主編：金匱要略譯釋，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pp.373~376, 1993.
18. 李文瑞 主編：金匱要略湯證論治，北京，中國科學技術出版社，pp.448~449, 1993.
19. 李培生：金匱要略講義(東洋醫學叢書)，서울，一中社，pp.146~147, 1990.
20. 李載熙：圖說韓方診療要方，全南光州，醫學研究社，pp.515~517, 1983.
21. 日本·丹波元簡 編著：金匱玉函要略輯義，北京，人民衛生出版社，p.168, 1983.
22. 日本·丹波元堅 編著：金匱玉函要略述義，北京，人民衛生出版社，p.60, 1983.
23. 張機(漢)：金匱要略方論，北京，人民衛生出版社，pp.35~36, 1982.
24. 張機 撰(漢)·徐彬 注(清)：金匱要略論註(四庫醫學叢書)，上海，上海古籍出版社，pp.(734-108) ~ (734-109)
25. 張仲景：仲景全書，서울，大成文化社，p.398, 1989.
26. 朱甲德：國譯 皇漢醫學(第壹卷)，서울，癸丑文化社，pp.261~262, 1974.
27. 中國中醫研究院：正統金匱要略，서울，의학연구소，1987.
28. 中醫大辭典編纂委員會 編：中醫大辭典(方劑分冊)，北京，人民衛生出版社，p.297, 1983.
29. 陳修園 著(清)：金匱方歌括，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p.75, 1980.
30. 蔡仁植：漢方臨床學(辨證施治)，서울，大成文化社，p.322, 1987.
31. 何任：金匱要略新解，浙江，浙江科學技術出版社，pp.98~100, 1982.
32. 何任 編著：金匱要略通俗講話，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pp.74~75, 1979.
33. 丸山清康：全譯 金匱要略，東京，明德出版社，pp.213~214, 1980.